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해 가족과  
자신을 한순간에 잃은 자들에게 미움사랑을 실천할 수 있  
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의 손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60호 2013년 11월 2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태풍 '하이옌' 현장엔 음식, 물 그리고 기도 필요!

### 미 언론, 태풍피해 입은 모국 위한 재미필리핀공동체 등 긴급구호운동 소개

기상관측 사상 최대 순간풍속(시속 379km)의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외신들이 앞 다퉈 현장에서 전하는 사진과 기사를 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테 섬의 주도이자 최대 피해지인 인구 20만 명의 해안도시 타클로반은 시내에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쓸대밭이 됐다. 거리는 쓰레기와 건물 잔해로 뒤덮인 강으로 변했고, 고인 물에 주검이 술하게 떠다니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이다. 이곳에서 사망·실종된 피해자만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서베스천 로즈 스태프 유엔 재해조사단장은 피해현장을 둘러본 직후 22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도양 쓰나미 직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진 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예측불허의 기상교란과 필리핀의 후진적인 재해예방시스템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호하고, 피해지역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이미 국외의 재난기금을 투입하기 위한 '국가재앙 사태'를 선포했고,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이 즉각 구호기금과 수색장비 및 인력 제공을 약속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들은 스스로 모국의 참담한 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교회공동체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빠른 구호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바야안(kababayan·고국 사람을 뜻하는 필리핀어)을 돕습니다." "바야니한(bayanihan·공동체 정신)을 발휘합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사상 최대의 태풍 하이옌의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내 필리핀계 이주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필리핀 이민자 단체 연합인 'NAFCON' 테렌스 발렌 회장은 9일 웹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 국토를 활취고 있는 환경적인 해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외 동포사회의 지원이 구호 노력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환경과피해를 비판하면서 미국 내 필리핀 이민자 권리신장 활동을 해 온 이 단체는 태풍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바야니한 모금운동'을 펴고 있다. 이 단체의 중서부지역 책임자인 네리사 알레그레티는 11일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피자 가게에서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이 전했다.

그러나 필리핀 이민자들은 본국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통을 태우고 있다.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필리핀계 교회의 루벤 세디노 목사는 "교회 신도들이 고향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비탄에 빠져 있다"며 "날마다 TV를 들여다보는 것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수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필리핀 중부 지역에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필리핀 인구의 10%에 가까운 1000만 명이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다. 이중 미국에 가장 많은 40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추산한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운데 필리핀계는 중국

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가사노동 등 저임금 노동으로 번 돈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연간 210억 달러 이상의 돈은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3면으로 계속)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사부와 김성국 목사부(왼쪽부터)

## "말씀, 순종의 길,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

### 퀸즈장로교회 3대담임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퀸즈장로교회가 지난 17일 3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8월 28일 2대 박규성 목사 사임 후 3개월 만에 새 담임을 맞았다.

김성국 목사는 지난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3대 담임목사로 결정됐다. 김 목사는 투표자 890명중 784표를 얻어 88.1%의 지지를 받았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답사에서 해례교회와 가족, 순서말은 자들과 참석자들에 감사한다며, "퀸즈장로교회 위임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고 책임이 무거운 길이기도 하다. 이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함께 하고자 한다. 저는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장영춘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통해 행하셨던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일을 보았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 40년 이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영여회중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한 영향력이 광범하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장영춘 목사님 내외분과 주님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동행을 신실하게

갈 것"이라며 기도와 사랑을 당부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위임목사의 사회로 기도, 허경화 장로, 성경봉독, 이근우 장로, 찬양대 찬양, 설교 장영춘 목사, 특송 글로리아선교중앙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로 장영춘 목사는 "영광의 직분"(엡4:7-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인류구속을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예수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교리를 세상에 주셨는데,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직분은 영광의 직책으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김성국 목사를 위임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장 목사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김성국 목사는 사람의 사람, 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성국 목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양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위임예배는 노회장 허상희 목사 인도로 위임목사와 교인 서약이 있는 후 위임목장 허윤준 목사의 위임기도와 공포가 있었으며 노회장이 위임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권은이규본 목사(위임목사에게)와 이중원 목사(교인에게)가 담당했다.

(3면으로 계속)



3면

하나님 앞에 "복종" 할 때, 온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인터뷰

김호동 목사(GMS)



16면

초대시  
고 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4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1월 2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1월 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4년 1월 27일(일) - 29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시론

##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할시위를 떠난 화살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속도처럼 빨리 달려온 2013년이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지치면 더 걷기를 거부하고 잠시 쉬면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한다. 우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갈 필요가 아닐까. 요란스럽게 살아온 한 해 같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 속에 3주만에 걸친 새벽기도회를 하기로 하였다.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우리 앞의 진짜 큰 산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다가 복음 앞에 깨지지 않는 우리야말로 쉽게 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이여겨져서 최근 들어 감명 깊게 읽고 있는 “복음-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폴 워셔 목사의 책을 매일 새벽 한 장씩 강요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군더더기 없이, 딱딱하지만 명쾌한 설명으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핵심에 다가서게 만든다.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우리를 원색적인 복음에 다가서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겼으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 짓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적나라하게 펼쳐보인다. 죄 문제를 설교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의 톤이 올라간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다.

그중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흔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분노하시고, 죄인을 증오하신다는 말이다. 실제로 죄와 죄인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칼을 가지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시7:11,12, 11:5). 이런 분노 앞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격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는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죄 짓는 것에 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두려운 일로 여겨야 한다. 동시에 죄를 피할 수도 없기에 최선을 다해 회개해야 한다. 지은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결단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열매다.

2007년 서울 삼양경기장의 평양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에서 옥한흠 목사는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라는 기념비적인 설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초대 소아시아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점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질타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도 뜨겁고 봉사도 많이하여 뭐나 흠을 잡을 데가 없어도이지만 불꽃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행위가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고 오늘의 한국교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버린 자신을 포함한 교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100년 전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라고 외쳤다. 그는 그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사자처럼 포효했고 그 설교를 들은 이들과 더불어 회개한 기억이 이 것제의 일처럼 새롭다.

(4면으로 계속)

# 하나님 앞에 “복종” 할 때, 온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 CT, 그리스도인 경멸했던 좌파 레즈비언 교수의 개종기 보도

한국에서 지난 2007년 전 문화부장관인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소식은 기독교계를 넘어서는 큰 화제였다. 문학 평론가이며 교수로, 언론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화 행정가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지식인이던 그가 고회를 넘어 하나님에 귀의했다는 것은 흔한 말로 ‘쇼킹’한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신앙을 갖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달변가이면서 화려한 수사의 글쓰기를 해왔던 그동안의 모습과 달리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회 강연 등 제한적인 자리에서 이어령 교수가 한 간증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입소문만 전해질 뿐이었다. 그랬던 그가 세례를 받은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신앙인이 되기까지 겪었던 가슴속 슬픔과 외로움, 낙담함과 무기력함을 털어놓은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버터필드(Rosaria Champagne Butterfield) 교수의 개종은 또 다른 충격을 준다. 좌파 레즈비언 교수로 대학에서도 정년까지 보장받은 그녀는, 성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려 이제는 사모로서 사역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말 개종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좌익 이데올로기, 즉 유물사관과 진화론 그리고 페미니즘의 진정한 대변인이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녀가 어떻게 해서 복음 앞에서 무너졌는가를 보도해준다(My Train Wreck Conversion: As a leftist lesbian professor, I despised Christians. Then I somehow became one). 그녀의 개종은 이제 동성애자들을 심판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버터필드 교수의 고백이다.

나는 조만간 ‘종신 재직 급진주의자’(tenured radicals, 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좌파 출신의 급진적 교수)가 될 운명의 영문학 및 여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와 레즈비언 파트너는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보전 및 문맹퇴치 활동, 골든 레트리버 구조 활동, 일



정치 논리,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신성하지 못한 삼위일체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1997년 처음으로 지역신문에 ‘프라이스 키퍼스’(Promise Keeper)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다.

기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내 책상 양편에 큰 장자를 하나씩 마련해두어야 했다. 하나는 내 기사에 대한 항의 편지, 다른 하나는 지지 편지를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켄은 내 기사의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편지를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나는 재활용 박스에서 그 편지를 끄집어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는 일주일 동

### 나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내 세계의 잔해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내 삶을 위해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학 교수로서 도덕과 정의, 연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프로이드와 헤겔, 마르크스, 다윈의 세계관을 열렬히 추종했으며, 항상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도덕을 중시했다. 만약 예수와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우파의 문화적 기반이 되지만 않았더라면 그럭저럭 그들을 참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9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팻 로버트슨이 페미니즘에 대해 빈정거린 내용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페미니즘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저버리고, 자녀를 살해하고, 마녀술을 행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레즈비언이 되게 만든다.” 나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리고 공화당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뒤섞여 울려 퍼지는 기독교 교리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종신 재직 심사를 통과한 후 나는 좌파 레즈비언 교수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나는 행복하고

신론적 보편구원론과(Unitarian Universalist,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일신설을 주장하는 일신론과 인간은 결국 모두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보편구원론을 포함한 교파 교회활동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공유했다. 아무리 로버트슨과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라도 나와 내 파트너가 이웃을 배려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LGBT(레즈비언)공동체는 타인에 대한 환대를 중시했고, 진심을 다해 능숙하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대접할 줄 아는 집단이었다.

나는 기독교 우파의 정체와, 우리 같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그들이 쏟아내는 증오의 정치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실존하게 만든 바로 그 책, 즉 성경을 읽어봐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내 조사를 도와줄 성경학자를 찾는 동시에, 예수와 공화당의

답답하기 위한 상자였다. 그런데 이런 편지 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편지가 한 통 날아들었다. 바로 시라큐스개혁장로교회(Syracus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가 보내온 편지였다. 호기심 가득 찬 호의적인 편지에서 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답을 요청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당신이 옳다는

안 내 책상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전혀 다른 세계관의 관점에서 내게 답변을 요구했다. 포스트모던 지식인으로서 나의 세계관은 역사적 유물론이었는데, 기독교는 초자연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켄은 전혀 몰랐겠지만 그 편지를 계기로 나는 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잃고 말았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net	<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pecial Seminar for Minister Ordination Candidate

# 52차 목사, 선교사 후보안수 교육세미나

52 차 목사, 선교사 안수 코스 안내  
국제복음주의협회(IEA, 1983년 설립)는 미국 연방정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교육선교, 의료선교, 교회개혁, 목회자연장교육,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신학교등을 설립하며 목회사역을위해 세계선교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초교파적인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시대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전문사역자로 세워 함께 시대적 소명을 이루고자 그 일환으로 전문분야 목사, 선교사 안수코스를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신청자격

- 1) 신학교 졸업자 (남,여) 전도사 경력 10년 이상인자
- 2) 목회학, 선교학 석사학사 소지자로서 전도사 혹은 선교사 경력 2년이상자
- 3) 평신도선교사 혹은 장로 10년 이상인자로서 목회 혹은 특수전문분야에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IEA가 주관하는 목사안수 코스(목회학 석사과정에 준하는 목연과정)를 이수하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사역분야- 음악분야, 교육분야, 목회분야, 상담분야, 복지분야, 교육, 원목 예식전문목사 - 장례, 결혼, 선교분야, 직장 영성분야 (목사 라이선스와 전문사역분야 Certificate 자격증)

#### IEA 사역과 특성

IEA에서 목사안수 받은 많은분들이 각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음  
1) IEA 소속 사역자로 신분보장, 국제적 활동 가능  
2)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 복음주의로서 60여개국에서 전문사역자 활동  
3) 자매협력기관- Midwest University, 국제교육협력기구 (IEC)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GLI) Global Gateway University, 국제상담협회 (ICA) Kimnet, KWMC, 한국기독교교회교연맹 세계크리스찬스쿨네트워크.

#### 52 차 목사, 선교사 안수 교육 코스 안내

신청접수 - 2013년 10월 1일부터 - 12월 20일까지  
제출서류 - IEA, 소정양식 및 첨부서류 (자세한것은 직접문의)  
서류심사 인터뷰- 교육과정이수- 목사고시-후보선정- 안수식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미국-목사안수 특별교육 안내

특강: 2014년 1월 27일(월) - 30(목)  
장소: IEA 국제본부  
843 Parr Rd, Wentzville, MO 63385  
전화 (636) 639-9221, 070-8690-2662  
Email: info@ieawm.org

#### 한국-목사안수 특별교육 안내

특강: 2014년 1월 13-16일 까지  
장소: IEA 한국본부  
서울기독교회관 810호  
02-3672-4514  
070-8834-451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ieawm.org 방문 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로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안수받으실 분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상호 협력사역 하기를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IEA 회원이 될수 있음.



**국제복음주의협회 (IEA)**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  
www.ieawm.org. e mail: info@ieawm.org



### 태풍 '하이옌' 현장엔 음식, 물 그리고 기도 필요!

(1면에서 계속)

사우스차이나모노포스트에는 가족과 연락이 끊겨 발을 구르는 필리핀 여성의 이야기가 실렸다. 홍콩의 가사 노동자인 마리아 코 누네즈는 태풍이 강타한 타클로반에서 2시간 거리의 오르막 출신이다. 누네즈는 고향집 식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교회공동체 역시 항상 발 빠른 행보로 어떠한 국가나 기관들보다 재난 현장에 긴급 도움이 되도록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 8일 필리핀의 여러 섬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던 강력한 태풍(Yolanda)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교단 구호 대책팀은 긴급 물자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연합감리교회구호위원회(UMCOR)는 재난 현장의 7,500명(혹은 1,500가정)에 긴급 식량과 물, 정수 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9만7천 달러 지원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기금은 또한 긴급한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연합감리교

회구호위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돕게 된다.

또한 교회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에서는 다른 교회단체(Lutheran World Relief, Christian Aid, 필리핀교회협의회)를 포함해 연합감리교회구호위원회와 필리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교회연합의 다른 동료 회원들의 초기 대응과 복구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재난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공급도 바로 재개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지역의 연락은 띄엄띄엄 이뤄지고 있으며, 교회 관련 보고도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필리핀계 연합감리교회 은퇴감독인 아체라(Daniel C. Arichea Jr.) 감독은 교회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원조를 제공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다른 교단과의 협조로 필리핀 현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지구촌 신앙인들은 먼저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원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빵과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 줄 친구가 필요하며 바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 앞에 "복종" 할 때, 온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2면에서 계속)

그 편지를 시작으로 장장 2년에 걸쳐 켄은 이교도인 나에게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게이 프라이드(Gay Pride) 행진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대는 현수막에는 우리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구절이 쓰여 있기는 했다. 그들은 나와 내 사랑하는 게이 친구들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켄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조롱하는 대신,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어느 날 켄이 저녁식사에 나를 초대했을 때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나의 수락 동기는 분명했다. 내 성경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켄과 그의 아내 플로이, 그리고 내가 친구가 됐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세계로 들어왔고, 내 친구들을 만났다. 서로의 책을 교환해 읽기도 했다. 성과 정치에 대해서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대화를 나누면 자신들의 순수성이 오염이라도 되는 양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나를 빈 서판(blank slate)처럼 다루지도 않았다. 식탁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했다. 그의 기도는 진실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였다. 그는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단호했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켄과 플로이는 나를 교회로 초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돼도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게걸스럽게 성경을 파고들었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나와 내 레즈비언 파트너가 함께 준비한 저녁 모임에서 내 트랜스젠더 친구 제이(J)가 나를 부엌

한구석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커다란 손을 내 손 위에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 로사리아." 그것은 경고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J, 만약 성경이 진실이면 어떻게 해?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라면서?"

J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로사리아, 나는 15년 동안 장로교 목사였던 사람이야. 제발 날 좀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겠니? 아무 소용없었어. 내가 원한다면, 네 기도도 해줄게."

그래도 나는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내 안에 불어넣은 생각들에 저항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곧 내 안에서 나보다 성경의 능력이 더 커졌고, 바깥 세계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나는 죽음을 다해 저항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레즈비언 연인의 침대를 빠져나와 한 시간 후 시라큐스개혁장로교회의 신도석에 앉아 있었다. 부치(butch, 남성성이 강한 레즈비언) 특유의 짧은 머리를 하고 신도석에 앉은 나는 잠깐 하나님을 만나보려 온 것뿐이라고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전부 지옥불 속에서 고통 받는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내 의식을 자극했고, 결국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보았다. 계산 결과는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도처럼 내 삶으로 밀려들었다. 어느 주일 켄은 요한복음 7:17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모래 흐름처럼 내 발목을 휘감았다. 나

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이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나 나는 먼저 '이해'가 되어야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동성애가 왜 죄인지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 기도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외모는 전날 밤 그대로였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정말 레즈비언인가, 아니면 그저 정체성을 착각한 것뿐이었을까? 만약 예수께서 세상을 산산이 쪼개고 혼과 골수를 가를 수 있는 분이려면, 나의 진짜 정체성은

밝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앞으로 나아갔다. 이 세계관의 전쟁 뒤에는 켄과 플로이, 몇 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내 세계의 잔해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내 세계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열정적으로 성령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 홀로 평화를 누렸지만, 곧 공동체 안에서 평화는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가족 안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나는 지금의 내 삶을 위해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과거의 내 삶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낱카로운 칼날처럼 번쩍이며 도사리고 있다.

### "말씀, 순종의 길,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

(1면에서 계속)

이규본 목사는 ①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라 ②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알라 ③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등 3가지로 권면했다. 이종원 목사는 ①순종하라 ②기도 많이 하라 ③목숨 내건 동역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3부 축하와 감사에서는 김혜천 목사의 축하, 찬양대의 축하, 장영춘 목사의 열쇠 증정, 꽃다발 증정 후 김성국 목사의 답사, 특송 강혜영 집사, 인사 및 광고 박선도 장로, 축도 부노회장 손관권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김혜천 목사는 김성국 목사에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된 것, 좋은 성도들과 사역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교인들에게는 겸손하고 인격적인 목사를 모시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새 담임 김성국 목사는 종신대학교와 대학원, 고든 콘웰(Th.M, D.Min)을 졸업했다. 창신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 서울남교회 부목사, 뉴욕산정교회 부목사, 보스턴장로교회 협동목사를 거쳐 퀸즈장로교회 부목사로 7년간 사역했다. 귀국 후에는 해천대학교 교수 및 교목실장, 해천대학교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유원정 기자)

## 소망 칼럼

###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어떤 사건이든지 당하면 그것을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병들게 되어있고 늙게 되어있고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어있고 죽게 되어있다. 이것은 인생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why me?'가 아니라 'me too'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한 일 그 속에 숨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뜻 없는 사건은 없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온다.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를 당장은 받지 못해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세계적인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 "최소한 적어도 2년 후에 지지받을 생각을 하라. 당장에 지지받는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다" 먼 훗날에 가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이리 저리 끌리며 갈팡질팡하는 자는 지도자일 수 없다. 특히 교회 지도자는 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헛된 소리 거짓된 소문을 듣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앞뒤분간 못하고 나대는 인간은 온전한 사람일 수 없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음으로 해서 아람 왕은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면 그 작전계획을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다 알아버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해도 쳐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군사를 보내어 그가 유숙하고 있는 산을 완전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그 포위망을 좁혀갔다.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본즉 아람 군사가 개미떼처럼 쳐들어오는 것이었다. 사환은 놀라서 엘리사에게 "아, 선생님, 이제 어찌할까요?" 하였다. 사환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발발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평온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적의 군사보다 우리 편이 더 많음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왕하6:14-19).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간에도 많은 사건과 고통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문제는 해결되곤 하였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닦쳐온 사실만 바라보고 별별 핏 수밖에 없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승리가 있는 것이다.

한 성자가 수도의 삶을 사느라 온갖 고생을 겪으며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세상 떠났을 때 그는 천국문 앞에 섰다. 주님께서 나오시어 이 수도사를 맞아주셨다.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주님의 영접을 받는 순간 자기가 걸어온 한평생을 뒤돌아보았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살아온 그 길이 오솔길, 험한 길, 고갯길, 자갈길, 진흙길 등으로 이어져 선명히 나타나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걸어온 발자국을 바라보니 두 줄이 나 있었다. "저는 혼자 가 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발자국은 두 줄입니까?"하고 주님께 여쭙었다. 주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세히 본즉 줄은 걸어온 발자국이 두 줄로 보이다가 터리는 한 줄의 발자국만 보일 때가 있었다. 그는 다시 주님께 여쭙었다. "발자국이 한 줄로 나있는 저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저기는 한 줄의 발자국뿐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때는 네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겨워 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 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 혼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초교파>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2기 세미나

####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져 하는모임
- 영적힘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구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호회 가입

#### 강사진



라파엘시스티브황보 사장



회장 석종규 목사



이사 캐더린 김혜연드림대표



이브캐서리엄 전제이슨 선교사

일 시: 2013년 11월 23일(토) 오전 9시~12시30분  
 장 소: 플러튼 하워드잔슨호텔 컨벤션센터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참 가 비: 30불(점심식사포함)  
 선착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회 장 :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사무국장 : 박정기 목사 213-327-8095



### 목회칼럼

####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3): 세속화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이집트, 시리아, 예멘, 터키로 퍼져나갔던 '아랍의 봄'은 시위, 무력진압, 테러, 암살, 내전으로 치달으며 더 큰 고통과 절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슬람주의(Islamism)와 세속주의(secularism)의 충돌에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지식 엘리트들과 군부가 하나가 되고, 이를 대항하여 신정일체의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들이 하나가 되어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적 쾌락을 자극하는 영화, 팝송, 인터넷 동영상 등 온갖 세속 문화, 코카콜라와 청바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고상한' 학문, 예술, 지식, 향락의 자유, 그리고 돈과 권력의 맛에 한번 심취했던 사람들은 세속주의의 유혹을 결코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세속주의를 사탄이 주는 타락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와 싸울 때,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수단 외에 다른 싸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주의자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폭력과 테러로 싸우며, 함께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생명'이 없는 종교 조직(organization)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속적인 쾌락, 성공, 돈과 권력의 유혹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혼, 포르노, 낙태, 혼전 동거, 가정 폭력, 성공주의, 돈 숭배,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아무도 별로 놀라지 않을 만큼 교회와 교인들의 세속화는 당연한 현실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의 바다로 떠내려갑니다(히2: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세상에 빠지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랑'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2:16).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우리는 세속주의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 싸울 때에 세속적인 무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엡6:17-18).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푸 / 른 / 초 / 장

####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중국어란 그리스어로 '티메'라 하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중요시 함'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인들은 '티메'하면 '급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올린다. 영어로는 honor로 번역된 이 말은 '진가를 인정함, 중시, 존경'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중(honor)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사 29:13). 오히려 세상을 좋아했고, 우상을 더 가까이 하였다. 존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이것이 존중의 원리이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흡니와 비드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귀하게 여

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보고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그런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에게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고 말씀하셨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한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셨다. 엘리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역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엘리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비롯해 그 가정까지 멸시하신 것이

다. 이것이 존중의 원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반면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그가 여호와

배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without honor)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could not do any miracles)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막 6:4-5)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으셨는가?' 그 핵심 이유는 존중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

다. 주님을 귀하고 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가난한 목수만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 닿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오직 능력은 예수님을 존중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대부분 '여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 뜻을 살펴보면 '여보'라는 말은 같은 '씨'(여)자와 보배 '寶'(보)자를 써서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여보'라고 부를 때 당신은 내게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서로를 존중함이 있어야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많

## 형통의 비밀 - 존중

(사무엘상 2:30)

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외형적으로 비취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존중함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목사 역시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며, 성도들끼리 또한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툼을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바귀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

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존중히 여기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를 존중함이 없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도,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데도 존중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다.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honor, 존중)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재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말3:16).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존귀한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존중의 원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케 되듯이, 존중하는 공동체 역시 형통케 된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체든 그 곳이 어디가 되었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공동체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되는 것이다.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존중이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라 로슈코프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질 일이 두려워서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해를 넘기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율해까지는 인내하

고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얼마 전 우리교회 교우중 하나가 전 기적임을 하다가 큰 화상을 입었다. 고통스런 화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사춘기 아들이 하는 말. "아빠, 하나님고 계산하실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계산서를 아직 내밀지 않으

셨다고 끝까지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전 우주적 종말의 날, 혹은 개인적 종말의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그 책이 펼쳐지고야 말 것

이라고 하였다(20:12).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올 것이니 지금 이 연말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가 아닌가?

## 김득렬 목사님의 회고록 출판 축하예배

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의 승리와 장학회에 열정을 쏟으시면서 금번에 감격적인 회고록을 출판하신 김득렬 목사님(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을 축하를 위해 한미 장로교 장학회의 주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의 크신 은혜라" "너는 안드레적 목사가 되라"

설 교: 윤명호 목사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오후 7시

장 소: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27075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교회) 248-356-4488

### 한미 장로교 장학회

회장: 임신웅 장로 서기: 김중대 장로

## 제44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4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12월 1일 (주일) 오후 4시
- 장 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 주 소: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문 의: (교회) (323)913-4499 / www.lafgc.com

- 회 장 단  
회 장: 박효우 목사  
수석부회장: 원영호 목사  
부 회 장: 강용순 목사, 강종민 목사, 강준민 목사, 고재원 목사, 김광수 목사, 김바울 목사, 김선국 목사, 김성민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배 목사, 박형은 목사, 서오석 목사, 이종준 목사, 이우형 목사, 이주철 사관, 이춘준 목사, 정우성 목사, 정영희 목사, 지윤성 목사, 최 혁 목사
- 사 무 총 장: 박세현 목사  
총 무: 홍성관 목사  
부 총 무: 정종일 목사, 김영국 목사, 김성실 목사  
협 동 총 무: 남철우 목사 (지역교회 총무단)  
서 기: 차권희 목사  
부 서 기: 김호근 목사  
회 계: 김철수 목사  
부 회 계: 진석호 목사
- \*사정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박효우 목사  
(신임회장)



진유철 목사  
(이임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churches3000@gmail.com www.theckc.org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난 8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제 10차 총회가 논란 가운데 10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다. 한국 기독교는 WCC 개최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큰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논란은 앞으로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이번 WCC 총회에 대한 기대나 평가도 극과 극이다. 준비위원장은 WCC 총회를 기독교의 올림픽이라고 했다. WCC 총회를 전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독교계의 축제, 종교 화합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면에 WCC 반대하시는 분은 WCC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 쓰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런 시도의 한계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실상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WCC 참여함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조직의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WCC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종교다원주의의 선봉이라는 것이다. 이번 WCC총회를 보고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한국에서 "WCC 부산총회 주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강좌를 했다. 그는 "1961년 뉴델리와 1968년 유살라 총회에서의 유명한 추진력은 1991년 캔버라 총회의 초혼제로 인해 멈춰버렸다"라고 했다. 여성신학자 정현경 박사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머니즘 무당 초혼제를 행했다. 온 세계가 경악했다. 이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교회 같은 중요한 회원교회들도 WCC가 공개적으로 혼합주의를 출범한 증거로

에 지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시작 전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 이슈는 총회기간 내내 내부적으로 총대들 간의 의견이 갈려졌다. 결국 진통 끝에 폐막식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배제한 일지성명서를 공식문서로 채택했다. 지도부의 비공식입장은 지지도 배척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반대가 강하니 본래 하고자 했던 의도를 접은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WCC 총무인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는 "WCC는 항상 정의와 평화를 강조해왔지만 그동안은 주로 정치적 의제로 다뤘다. 하지만 부산 총회에서는 신앙과 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자랑했다. 그것은 WCC 총회와 활동이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가 핵심이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신앙과 영성이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결정들이나 내용적으로도 그러한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총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새 선교-전도 선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지형 변화 속의 선교와 전도"이다. 주의할 것은 WCC의 선언

전도 활동은 WCC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외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붙여도 성경적인 선교와 전도는 아니다.

또한 새선언에 나타난 생명의 의미도 문제이다. 사실 생명의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생명의 WCC가 강조하는 자연적 또는 생물학적 생명인 목숨은 아니다. 성경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강조는 물론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요 6:33, 53; 14:6; 20:31). 성경은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WCC의 생명과 생명만은 너무도 보편적인 의미의 생명이다. 일치를 이루려고 하니 통전적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모든 종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매우 낮추어진 의미의 생물학적 생명으로 전락한다. 한국 무당부터, 뉴에이지, 또한 아프리카의 토속종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생명개념이나 성령으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제가 동료 목회자를 만나보면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거의 탈진상태에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목회자의 탈진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후배 목사-

**A:** 미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임하게 되는 요인은 도덕적 결함, 교회갈등, 가족문제, 질병 등 다양하지만 의외로 이 가운데 많은 비율이 탈진(Burn out)이라고 합니다. 탈진은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근래에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가? 신경질이 늘어가고 마음이 점점 편해지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숨 쉬는 적은 없는가?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계속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가? 마음속에 소리 없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가고 있지 않는가? 만약 당신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탈진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탈진현상은 자기관리의 균형(Balance in self-Management)이 깨져서 자기통제판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간신히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만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성공공부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뛰어들다보면 감성지수가 거의 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 이제 어디론가 멀리 가서 사람상대하지 않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

### 목회자 탈진 24시간 대기상태...쉽 없고 기대감만 높아

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리더의 자기관리 통제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탈진 일보직전의 기차와 같이 비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성장전문가이자 목회컨설턴트 라이프 웨이 박사가 리서치의 대표인 톰레이너 박사의 최근 칼럼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7일 하루 24시간 대기상태의 모드가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맺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쉬는 날조차 그들은 다음 전화를 기다리거나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갈등(conflict)입니다.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비난을 견뎌내는 그 과정이 목회자들의 탈진을 가속화시킵니다.

셋째, 기대감(Expectation). 만약 목회자가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하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교회성도들이 가진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목회자들에게 있으며 목회자들은 이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려 노력하다가 충족이 안되면 절망하고 탈진해 버립니다. 넷째, 절대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No resting). 레이너 박사는 내가 아는 한 목회자는 교회에 밀려드는 우편물을 본인이 모두 정리하다가 결국 3개월 뒤에 사임했다는 예를 들었다.

다섯째, 친구가 없다(No friend). 많은 목회자들이 의미있는 우정을 만들어 가지지 못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목회자 일수록 탈진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여섯째, 자신의 은사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이다. 이것은 셋째로 지적한 기대감과 비슷한 항목인데 목회자가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의 주 업무는 말씀의 사역과 기도사역 그리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일을 다 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고 또 좌절합니다.

일곱째, 교회 밖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갇혀서 즐거운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지 않습니다. 레이너 박사는 "이들이 탈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 WCC 제10차 부산 총회: 비판적 평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반대 교단들의 결정도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이자 신자들의 불행"이라고 했다.

WCC는 기본적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를 고백하는 기독교 기구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WCC 총회는 이번에도 교회안의 일치보다는 대립을 첨예화 시켰다. 50년전의 한국교회 교단들의 분열을 가져온 WCC는 이번에도 신학노선을 둘러싼 교단간 논쟁은 뜨거웠다.

WCC와 총회개회를 반대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WCC가 종교다원주의, 성경불신주의, 종교혼합주의, 선교무용론, 가시적인 교회 일치주의, 그리고 동성애 등을 허용 또는 조장함에 대한 비판들이다. 이런 비판들은 주목을 받을만하다.

물론 WCC의 색깔은 한 색깔이 아니다. WCC에는 여러 성향의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WCC의 리더십은 시작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주도해왔다. 물론 WCC 총회는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맥헨타이어 같이 WCC 반대운동을 하고 독자적인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피터 바이어하우스나 영국의 존 스토틀 등은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WCC에 참여한 적이 있다.

본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강사들은 모두 WCC 지도부가 선정하기 때문에 강사의 성향은 바로 WCC의 신학적 태도와 일치한다.

정교회는 에큐메니칼 서구식의 사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WCC의 Konrad Raiser 총무는 협의회식으로 바꾸었다. 그 이후 제네바의 WCC 리더십은 미리 고안된 의제들을 회원들에게 강요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WCC는 세계언론과 서구 회원교회들에 대적적인 관심을 잃게 되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세계언론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바이어하우스는 WCC에 대한 관심약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에큐메니칼의 주도권이 제네바본부로부터 로마교황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교황청은 WCC 설립부터 막후에서 주도해오다가 이제는 그 실체를 나타내지 시작했다.

WCC 부산 총회가 열리자 개최예배 및 행사기간 동안 초혼제, 토렘의식 같은 각종 무속적 요소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 다양한 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장에 동성애 옹호단체 및 타종교단체 부스 등도 설치되었다. 다시 종교혼합주의와 WCC의 동성

서가 비록 복음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WCC는 전도를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물의 생명 충만을 향한 헌신' 활동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숭실대의 최덕성 교수는 이번 선언서가 기독교 선교와 전도선언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많고 이단적이라고 비판한다. 1)선교와 전도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마르크스주의 복음을 대체시킨다. 2)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도외시한다. 죄를 사회적 불의와 구조 차원의 모순, 자본주의적 탐욕,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결함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3)하나님의 세계를 돌보는 역사와 구원 역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4)신약성경의 핵심 메시지 생명(zoë)을 자연적 또는 생물학적 생명-목숨(bios)로 환원시킨다. 5)종교다원주의를 담고 있다. 숭실대의 김영환 교수는 WCC가 개종 전도 금지선언을 이미 1997년도에 채택했다고 한다. WCC 문서는 개종강요가 기독교의 증언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증언의 타락'이라고 비판했다. 전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선교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역사적 기독교가 수행해온 선교와

성령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남의 잔치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대하여서는 회의심이 든다. 할 수만 있다면 폭넓게 안고 가고 싶다. 그렇지만 WCC의 실체를 알게 되면 같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WCC에 가입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님들의 절대다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WCC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신학과 흐름이다. 따라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진정한 일치는 외형적인 정치적 일치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는 그리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믿는 한 구주로 믿음으로(요14:6)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한 통곡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지도자들인 우리부터 회개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영적 여우뿔 속에서부터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 교역자 청빙

Logos Central Chapel 에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LCC 교회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한인 2세 교회입니다.

- 1. Full-time Education Pastor**  
-교육부 (Pre-K to 12th grades) 사역 전담 및 Children's Ministry (Pre-K to 5th grades)사역 담당, 영어필수
- 2. Part-time Youth Pastor**  
중고등부 사역 유경험자 및 영어필수
- 3. Part-time Praise & Worship Leader**  
평신도 사역자로 찬양사역에 열정이 있는분

#### 교부서류:

1. 영문 이력서 (Resume with personal picture) 1부, 사진포함
2. 영문 신앙고백서 (Personal Statement of Faith) 1부
3. 영문 추천서 (Recommandation Letters) 목회자 1부, 평신도 1부

제출방법: e-mail: pyb4jx@gmail.com



5300 E Florida Ave. Denver, CO 80222  
Tel. 720-737-0030, www.logoscentralchapel.org

## ITS 목회학박사과정 동계 및 하계 집중강의 (D.Min Intensive Courses)

- 12월 2일- 6일 (월-금) 9:00-4:30 바울신학 박영호 박사(시카고대학교, Ph.D)
- 1월 6일-10일 (월-금) 9:00-4:30 예레미야 김근주 박사(옥스퍼드대학교, Ph.D)
- 6월 16일-20일 (월-금) 9:00-4:30 교회와 설교 이연길 박사(컬럼비아 신학교, D.Min)
- 6월 30일-7월 4일 (월-금) 9:00-4:30 16-17세기 개혁신학 한병수 박사(칼빈신학교, Ph.D)

- 장 소: 3225 N. Tyler Ave., El Monte, CA 91731 (본교 강의실)
- 연락처: 학교 626-448-0023

Korean Program Director 김재영 목사 562-665-5057

본교 학생들 이외에도 관심있는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청강의 경우, 소정의 수강료와 점심값)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는 미국신학교협의회(ATS) 정식회원으로서 같은 ATS회원 신학교들과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ITS는 M.Div, MA, Th.M, D.Min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입학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세네갈의 구실레이(GUSILAY)**



18,900 명가량의 세네갈 구실레이 종족은 국토의 남동부 기니비사우와의 국경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 그룹들을 집합적으로 세네-감비아 종족이라 일컫는다. 대부분이 세네갈과 감비아에 걸쳐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에 살기도 한다.

세네갈의 인구는 가장 큰 종족 그룹인 율로프족, 풀라니족, 투콜로르족, 세레족, 디올라족 그리고 말린케족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다양한 종족 그룹을 포함한다. 농업이 주 산업이기는 하나 농경에 적합한 토양은 전체 재배면적의 3분의 1 미만이다. 그럼에도 세네갈 땅콩 생산에 있어 세계 1위를 자랑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구실레이 종족을 그들과 이웃한 졸라족의 산하 그룹인 발란테족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구실레이어로 불리는 구실레이족의 언어는 니제르-콩고 어족의 부분이다.

**삶의 모습**

땅콩과 땅콩기름은 세네갈 국민의 연간 수출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1980년대 연수입 29%에 달하던 수입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12%에 지나지 않는 하향세를 보였다. 쌀농사와 토마토 재배의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의 다양화와 자립경제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구실레이 종족의 특이한 삶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은 자활 농부들로 추정된다. 기본적인 농기구들을 사용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수수, 쌀 등이 주산물이며 호박, 멜론, 고구마, 고추, 토마토 등도 재배한다. 바나나, 코코넛, 망고 그리고 파파야 등의 과일도 주요 재배 품목들이다. 구실레이 사람들은 소, 양,

염소 등을 사육하는데 우유나 염소 젖, 양젖 따위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개나 닭들을 볼 수 있다. 사냥은 농사만큼 중요하지는 않으나 야생과일, 야생뿌리, 야생열매 그리고 플라, 시아 또는 아자열매 등의 수확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구실레이 종족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원으로 둘러선 일군의 움막집들로 이루어진 캄파운드에서 확대 가족 단위로 사는데, 전체 캄파운드는 담장이나 울타리 또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체로 이러한 캄파운드들이 연결돼 조밀한 촌락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은 원형의 흙벽으로 된 옥수수 모양으로 초가지붕을 얹은 형태이며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들로 지어지기도 한다.

구실레이 공동체에서는 남자들이 사냥, 고기잡이, 토지 경작 그리

고 가족 사육 등을 감당하며 여자들은 수집과 농사일의 일부를 돕는다. 촌장은 촌락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며 사후에는 그의 직계형제 또는 그의 최연장자 자매의 장남에게 계승된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며 여성의 할례의식도 더러 시행된다. 이러한 관습들은 사춘기의 성 인식 행사와 주로 연관이 있으며 격리된 '숲속학교(bush school)'에서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의식들을 포함한다.

구실레이 종족은 사촌간의 결혼을 선호한다. 가족, 대체로 돼지를 신부대로 지불하며 민며느리제도의 혼전봉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일부다처는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 아내들에게는 별도의 움막집이 주어지고 남편은 일정 기간을 윤번제로 각 아내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신앙**

구실레이 종족의 70%는 수니 무슬림들이다. 이는 유일신(알라)에 대한 믿음, 하루 5회 기도, 금식(특히 이슬람 성월 "라마단" 기간 동안), 구제 그리고 가능한 한 한 번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이슬람법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25% 가량은 종족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그들 고유의 다양한 민간 종교 의식들을 지킨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실레이어로 된 기록과 자료들은 없다. 그러나 현재 그들을 겨냥해서 사역하는 한 개의 선교단체가 있다. 구실레이 신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제자훈련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보코하람' 테러집단 공식 규정**

미국 정부는 13일 알카에다와 연계된 나이저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안사루를 테러집단으로 공식 규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나이저리아 정부가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뿌리 뽑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법은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단체와 사업 또는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나이저리아의 자생 급진 이슬람 단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다'란 뜻을 지닌 보코하람은 이슬람 근본주의 통치를 주장하는 과격 무장 세력으로 2009년 나이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뒤 정부와 유혈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요베 지역의 학교를 공격해 40여명의 학생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 단체 최고 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세카우는 지난 6월 정부군과의 총격전 도중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영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 자신은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안사루는 지난해 6월부터 테러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 인질 7명을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두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공식 지정한 나이저리아 정부는 북동부 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군병력을 투입해 보코하람 근거지 파괴와 수색·검거 작전을 펴고 있다.

**미 무신론 일요집회 400명 성황**

미국에서 무신론자를 위한 '일요집회'가 수백 명의 참석자를 모으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AP가 11일 보도했다. 신앙을 잃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신론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교계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남녀 코미디언 두 오인 샌더슨 존스와 피파 에반스는 10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강당에서 일요집회를 열었다. 무신론자이거나 무신론에 관심이 있는 400여명이 모였다. 무신론자를 위한 매가처치(대형교회)를 표방한 이 집회는 교회의 주일 예배를 흉내냈다. AP는 "어린이 등을 포함해 가족단위로 모인 수백 명이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조용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 대형교회의 전형적 주일예배처럼 보였다"며 "단지 그곳에는 하나님만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건한 예배와 다른 점은 진행자 코미디언이 개그소를 펼치거나 게임을 진행하면서 참석자에게 웃음을 줬다는 것이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커피와 빵을 나눠 먹으며 교제를 나눴고 헌금함처럼 기부상자를 돌리는 등 주일 예배와 흡사한 모습을 보였다.



존스와 에반스는 이번 집회 이전에도 미국과 호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 일요집회를 개최해왔다. 이들은 전 세계를 돌며 일요집회를 열기 위해 8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5만 달러가 모였다. AP는 종교적 믿음 없이 강력한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가 등장했다며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려 이 같은 운동이 더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신앙이 없다고 답한 미국인은 2007년 15%에서 2012년 20%로 늘었다.

일요집회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자주 도우며, 더 많이 생각하라'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클레어몬트의 피쳐대학 필 주커먼 교수는 "신앙에서 멀어졌지만 교회가 주는 공동체 활동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요집회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돌며 일요집회를 열기 위해 8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5만 달러가 모였다. AP는 종교적 믿음 없이 강력한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가 등장했다며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려 이 같은 운동이 더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신앙이 없다고 답한 미국인은 2007년 15%에서 2012년 20%로 늘었다.

일요집회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자주 도우며, 더 많이 생각하라'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클레어몬트의 피쳐대학 필 주커먼 교수는 "신앙에서 멀어졌지만 교회가 주는 공동체 활동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요집회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성탄선물이 개종강요 뇌물?...소송 으뜸장**

미국 무신론 단체들이 성탄절 선물이 불법 개종활동이라며 판국을 걸었다. 18일 크리스마스 포스트에 따르면 무신론 단체인 미국인본주의협회(AHA)는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공립 초등학교 2곳에 서신을 보내 "크리스마스 기부 행사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 분리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AHA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결국 개종을 강요하는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두 학교는 수년 전부터 기독교 '사마리아인의 지감'이 주관하는 기부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에 참여해왔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신발상자에 책과 장난감 등을 담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크리스마스들은 AHA가 연말연시 주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좋은 취지를 간파한 채 신발상자 안에 적힌 짧은 기독교 메시지를 문지 삼았다고 비난했다.

AHA의 으뜸장이 계속되자 두 학교 중 한 곳인 이스트포인트 아카데미는 쓸데없는 송사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결국 기부를 중단기로 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1993년 시작돼 현재까지 130개국 1억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미 법원, 9.11박물관 '십자가 철거' 소송 기각**

최근 미국 법원이 9.11 기념박물관에 위치한 십자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원고 측인 무신론자 단체는 항소했고,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는 해당 단체를 향해 "문자 그대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성



명을 발표했다. ACLJ의 제이 세클로우(Jay Sekulow) 자문대표는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체적으로 적합하고 합법적이었다. 특히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9.11 기념 박물관에 놓인 십자가의 실제적·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물관은 종교적인 주제를 지닌 작품이나 혹은 예술적·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작품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항소법원 역시 이에 대한 법적인 도전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뉴욕시 소재 '국립 9.11기념박물관'에 전시된 '크로스 메모리얼(The Cross Memorial)'은,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발생 후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상징물이 됐다. 미국의 무신론단체인 '미국 무신론자(American Atheists)'들은 지난 2012년 "박물관에 십자가를 설치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의 드보라 배츠(Deborah Batts) 판사는 "이 조형물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세속적인 조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물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목적은 9.11을 둘러싼 역사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고, 이 십자가는 그 역사의 일부분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신론 단체는 "십자가 조형물이 '죽은 자들을 기리려는 비기독교인들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십자가는 국립 9.11 기념 박물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또한 17피트의 높은 기독교 십자가는 기념관 내에서 가장 큰 조형물이다. 이 십자가는 다른 모든 종교적인 대상들을 압도한다"고 주장했다.

ACLJ는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 판례는 십자가와 같은 전시물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교설립금지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역사를 아는 것이 종교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박물관은 사진, 기념품, 2대의 소방차, 엠블런스, 세계무역센터 건물 일부분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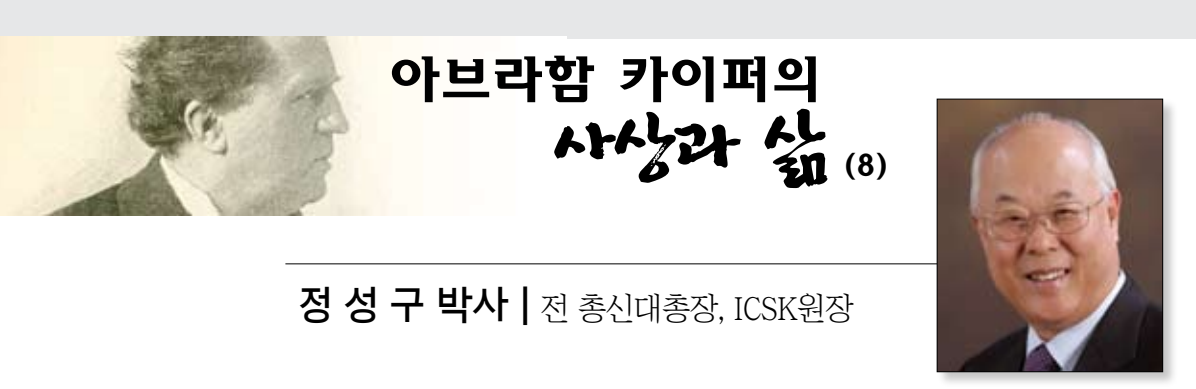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8)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 암스테르담 중앙교회 목사가 되다

카이퍼는 화란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중에서도 왕궁과 나란히 중앙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의 나이 33세 때의 일이다. 어느덧 카이퍼는 시골의 전통적 교회의 목회와 유폴레트중앙교회의 목회를 거쳐서 농이고 틀이 잡혀진 목사로 암스테르담에 왔다. 암스테르담교회의 총교인수는 1만4천 명이었고 당시 암스테르담 인구의 절반이었다.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십여 개의 교회당이 있었다. 그 교회는 자유주의적 목사 장로를 축출하고 오직 정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사람만으로 선출함으로, 카이퍼 같은 강력한 메시지와 칼빈주의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카이퍼 박사는 부임 첫날 에베소 3:17을 읽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교회는 비진리에 항거해야 하며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카이퍼 목사의 메시지는 늘 새롭고 역동적이었다. 그의 설교는 어느 계층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나 빈부의 관계없이 유 무식과 관계없이 살아 있는 말씀을 힘 있게 증거했다. 카이퍼는 교회당을 찾는 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영혼의 깊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

카이퍼의 설교와 카이퍼의 글들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개혁주의

적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상적 설교였다. 카이퍼 목사와 성도들의 영적교감은 신앙생활의 전반기에 나타났다. 카이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런 일이었다. 카이퍼가 설교할 때 우선 성경의 본문을 충분히 해설했다. 카이

퍼의 설교는 신학적인 강요도 감정적인 훈계도 종교적인 설교도 아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설교였다. 카이퍼의 설교에는 지경의 중에 항상 조화를 이루었고 그의 설교는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며 은혜가 풍만했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는 새로운 통찰력과 신선미가 있었다. 카이퍼는 사회복음주의를 설교한 적은 결코 없었으나 복음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자주 강조했다.

카이퍼 목사는 타고난 문장가이기도 했지만 그는 또한 타고난 웅변가요 능변가이기도 했다. 카이퍼는 웅장한 발성, 간결한 단어, 음절

의 높낮이, 때로는 잔잔한 시내처럼, 때로는 천둥이 치는 듯 한 폭발력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을 가진 설교자였다. 그의 발음은 우아하고 고전적이면서도 역동성이 있었다. 카이퍼의 설교는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은 말할 것도 없

고, 그의 웅장한 목소리 그리고 능숙한 강해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설교할 때 미적 즐거움도 함께 누렸다. 실은 카이퍼는 미학(美學)에 대한 연구도 했고 강의도 한바 있었다.

이때가 카이퍼의 목회의 최고의 전성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훌륭한 대 설교자가 암스테르담교회에 부임함으로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카이퍼의 설교를 듣고 그가 쓴 설교와 글들을 읽으면서 카이퍼가 꿈꾸던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

키는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 성도들은 카이퍼를 우상시 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이런 목회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실제로 카이퍼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카이퍼의 성경봉독에도 은혜를 받았다. 대개 설교자들이 설교의 중요성은 알아도 성경봉독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카이퍼의 성경봉독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지 성경봉독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하리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1947년 신약학자인 흐로슈아데(Grosheide) 박사는 회고하기를 "어려해 전에 어느 공적인 모임에서 나는 카이퍼 박사가 시편 148편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낭독으로 내가 받은 인상은 오늘날까지 생생하다. 분명하고 특이한 낭독 방식은 너댓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 이상으로

리데 카이퍼는 벌써 1870년대에 그러했으니 그는 탁월하게 앞서간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카이퍼의 설교들이 때로는 강연 스타일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심오한 해석과 탁월한 방식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카이퍼의 설교에 감동받은 친구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암스테르담의 고급 주택가인 프란스 핸드릭카데 183번지의 저택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카이퍼 박사의 목회전략 가운데 교육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과 장년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중에서 카이퍼는 개혁교회의 역사를 심도 있게 가르쳤다. 당시 카이퍼의 목회지역에 6, 7천명의 등록교인이 있었는데, 35세의 젊은 목사가 그 엄청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카이퍼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처리하며 특별히 자유

이며, 둘 다 고정된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뿐이며, 또 둘 다 실체가 없고 비실체적인 형태와 그들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즉 카이퍼의 메시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공허하고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카이퍼 강연 중에 몇 토막을 인용하면 이렇다. 즉 "자유주의 신학자의 신은 추상적(abstractism)이다."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구원의 본질을 결여한다."

"만일 그들이 논리적이거나, 그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 섭리라는 자신들의 개념을 부인해야만 한다."

"그들의 말하는바, 진화론적 인간관에 따라서, 만일 자신과 도덕적 성품이 짐승에서부터 진화했다면 도덕을 논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말한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생각에 죄는 내적불안, 결코 인정되지 않는 한 도덕적 이상에 의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이상이란 것도 실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표시, 특정 내용이 하나도 없다. 현대주의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꾸었으므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는 가장 완고한 교의 학자이다."

카이퍼 자신이 과거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자유주의자로서 목회일선을 나갔던 사람이었기에 자유주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적수임을 알고 철저히 공격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메일:skc0727@yahoo.com

시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카이퍼의 목회사역의 범위는 암스테르담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회사역은 전국교회였고, 화란 전체에 미쳤다. 설교, 강연, 대중연설, 논설, 명상록, 설교집, 에세이 등등 그는 이미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졌다. 별명처럼 그의 메시지는 모든 성도,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의 목회학 이론 가운데 목회란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이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목회대상이란 이론이다. 그

중의 신학의 도전에 대하여 영적전쟁의 전사가 되었다.

1871년 3월14일 암스테르담교회에서 현대주의(Modernisme)에 대한 비판 강연을 했다. 물론 이 강연은 다른 도시에도 계속되었고 작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카이퍼의 주장은 이렇했다. 현대주의는 그냥 세 계관이나 시대사조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를 신기루로 비교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분석했다. 카이퍼 박사가 본 자유주의와 신기루는 둘 다 웅장하고 매혹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화려한 현상

## “지역내 모든 사람이 목회대상” 목회이론 실천 자유주의는 ‘신기루’ ...공허 유명무실함 비교분석

### 칼럼 음악목회 (18)

## CCM(Contemporary Church Music)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대부분의 교회가 요즈음의 문화적인 요구에 따라 CCM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CCM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성경적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 목회적인 차원에서 CCM의 활용은 신학적인 연구와 성경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문화의 특징인 혼합문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찬양대의 역할과 CCM 경배팀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교회음악 역사에 근거한 바람직한 음악목회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

음 많은 교회들이 담임목사님이 바뀌면서 젊은 목사님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전통적인 찬양대를 해산하고 CCM 만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교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모두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가는 미국교회들 중에는 주일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다면 각 예배마다 특색있는 예배

로 설정하여 그 예배를 선호하는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1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드러온 스타일의 Traditional Service를, 2부는 어린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Family Worship 그리고 3부는 Seeker Service로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보여주는 예배, 경건하다 은혜 받는 예배형식을 취하고 주일오후에는 낮잠 자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4부 '젊은이 예배' 등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우

리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가지 특색으로만 예배와 목회를 끌고 간다면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 밖에는 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아무나 오게'가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끼리끼리만 즐기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우리의 것을 너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배의 유형도 다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양새'만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모양만 갖추었다고 내용

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실례로 1980년대 시카고 월로우크리치치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구도자예배를 도입하면서 음악의 장르를 그대로 흉내내어 지금의 CCM과 같은 경배팀을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의 청계천 전자상가에는 CCM 장비인 전자악기와 Sound장비들이 차고 넘치는 현상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추어 연주자들 그러니까 취미로 그 장르를 즐기는 교인들이 구성되어 CCM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역은 봉사직 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이들 교육을 맡게 되면 아이들을 망치게 하

는 사례가 많이 있듯이 음악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성도들이 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전문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의 절대가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귀로 들어 불편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예배가 구성된다면 과연 효율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결코 연습이 아닙니다. 완성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음악을 다루는 자들의 영성입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또한 찬양인도자들은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 위에 신앙고백으로 드러지는 찬양 곧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미주판 2014년 다이어리

# 2014 DIARY

## up to 50% 세일

**임마누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겸한 임마누엘(미주판)  
컬라: 저주, 브라운 대(23/16.5cm)

**쿨란**  
다양하고 짜임새있는 컨텐츠로 구성!(미주판)  
컬라: 군청색, 브라운 대(23/16.5cm) 중(18.5/13.5cm)

**하이움 (생명의 말씀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근한 사역 도우미!  
컬라: 다양한 색상 대(23/16.5cm) 중(18.5/13.5cm)

### FREE!

<20개 이상 단체 주문시> 다이어리에 인쇄해 드립니다.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아가페**  
고급선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미주판)  
컬라: 군청색, 브라운, 검정 대(23/16.5cm) 대(21/13cm) 중(17/11cm) 소(13/7cm)

**하경삼**  
모던한 디자인의 미주판 다이어리!  
컬라: 다양한 색상 대(19.5/14.5cm) 중(18.5/12.5)

**양지사**  
전세계인이 함께 쓰는 다이어리  
컬라: 다양한 색상 특대/대/중/소/특소

### <영문판> (특대)

일반영문판

인생의 1/3을 잠(수면)으로 보냅니다. 하루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밤...

## 메밀 야곱의 돌베개

**특징**

- 코골이 예방
- 목주름 예방

숙면은 양보다 질... 만가지 보약보다 쾌적한 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수면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만들어진 목주름 예방 돌베개 바로 혈액순환개선이 되도록 설계된 목주름 예방 돌베개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세일

기간 2013년 11월 ~ 12월 말까지

**Sale 1.**  
**호산나 서점 점포정리 - 전품목 up to \$2.00**

(호산나 서점이 경기 불황 침체로 점포 정리함. 기독교서적센터에서 전품목 인수하여 현 가격과 상관없이 개당 up to \$2.00씩 판매함) 주석류, 일반 신앙서적류 일체/찬송, 찬양류/듣는 성경, CD/DVD 일체, 말씀성구, 성화 액자류 / 성구로된 컵종류

**Sale 2.**  
**"기독교서적 센터에서는 전품목 up to 50% 세일"**

큰글자 성경류, 한영성경류, 신앙서적류/각종 말씀성구, 성화액자, 말씀 자수로 된 태월류 성구로 된 컵 종류/수천종류 말씀 선물류 등

**Sale 3.**  
**"기독교서적센터에서는 강대상류 up to 30% 세일"**

\* 크리스탈 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본대, 강단의자, 현금함, 현금보조대, 십자가 기타  
\* 나무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본대, 강단의자, 현금함(대/중/소), 십자가(특대/대/중/소) 분당 장의자, 분당 개혁의자 기타

##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TEL. (323)737-7699, (323)737-4526 /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 인터넷 쇼핑몰: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2014년 \*올해내게주신말씀 책갈피'는 고급매 매듭으로 만들어짐. 한글, 한영으로 전면디자인 20가지, 성구 500구절로 만들어짐. \*12월10일까지 주문시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인쇄해 드립니다.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65. 창조론의 기초(16) - 방사성 연대측정

신학자들이 과학자들 앞에 무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사실'이란 것 때문이다. 진리의 기본은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이고 과학자들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력하게 대응하게 된 것도 진화는 '사실'이란 말에 속았고 아직까지도 속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진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신학을 건설하고 있다. '가장 정확한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자들의 말에도 꼼짝 못하고 수십억 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가 실상을 알아차리기를 바란다.

방사성 연대 측정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알려진 이 연대 측정법은 세상 과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찰이 안 되고 증거도 없는 진화설과 달리 과학자들이 직접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이 방법 역시 진화론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실상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나이를 알고 있는 암석의 나이를 맞추지 못한다" 암석의 측정 나이가 실제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나온 몇 가지 예를 표에서 볼 수 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이 왜 정확하지 않을까? 방사성 연대 측정의 원리는 의심 없는 사람들 혹은 이 방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인다. 방사성 원소 A가 일정한 속도로 원소 B로 붕괴가 되므로 없어진 방사성 원소 A의 양을 측정하거나 생겨난 원소 B의 양을 측정한다. 측정된 양을 붕괴 속도로 나누면 기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리가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 왜 제대로 나이를 맞추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 과정에는 적어도 3가지의

가정(assumption)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원래의 방사성 원소 A의 양을 알고 있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수십억 년 전 암석 속에 A 원소와 B 원소가 어떤 비율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초기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A만 있었고 B는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두 번째 가정은 붕괴 속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일정했었다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필

동위원소들도 붕괴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화강암 속에 들어 있는 우라늄 붕괴도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이 증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됨). 방사성 연대 측정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 '일정한 붕괴 속도'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가 실제와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일반 과학자들의 학회인 미국지구물리학회(2003년 America Geophysics Union)에 지구 역사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증명한다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방사능이 있는 우라늄이 붕괴할 때는 여러 원소를 거처다가 최종적으로 납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헬륨이 발생한다. 이 헬륨은 다른 어느 물질과도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이므로 암석 밖으로 빠져나와 대기 중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방사성 연대 측정으로 15억 년 된 화강암 속에는 헬륨이 거의 다 빠져 나갔어야 하는데 아직

라던 최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가까운 과거 연대가 방사능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그런데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붕괴 속도가 변함없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무의미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

잘못된 지구의 나이(역사)는 성경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밝혀졌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리라면 그 내용은 최소한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이 아닌 것이 진리일 수 없다. 이 원칙에 철저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터무니없는 집단일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나쁜 집단이라고 결론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죄, 죽음, 구원, 생령, 천국 같은 것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성경이 요구하는 행위의 범들도 마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교회와 성경을 증오하는 과거 교회의 멤버였던 사람들의 행위들을 그저 가슴 아프게 바라만 보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 더 적대적이게 되고, 혼전 성관계도 더 문란하게 되어

### 무의미한 숫자놀음 방사성 연대 측정법

###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속도 일정치 않아

### 성경역사 신화로 믿은 결과 교회 떠나 더 적대적

측정 암석	실제 연대(년)	측정 연대(년)
Mt. Etna 현무암	29	35,000,000
Mt. Etna 현무암	37	700,000
Mt. Stromboli	38	2,400,000
Kilauea Iki 현무암	40	8,500,000
Mt. Lassen 증석	85	11,000,000
Hualalai 현무암	200	1,600,000
Hualalai 현무암	200	22,800,000
Sunset Crater 현무암	950	27,000,000
Kilauea 현무암	1000	30,000,000
Mt. Etna 현무암	2100	25,000,000

**방사성 연대 측정의 예**  
측정 결과는 실제 연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은 연대 측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하다. 시간을 측정할 때 시계의 속도가 변함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그 암석 속에 A와 B 원소가 자유롭게 들어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조건을 유지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정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연대 측정 결과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정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가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Th-228, Rn22, 그리고 Si-32에서 확인하였다. 이 동위원소들은 연대 측정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도 많은 양이 그 암석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대기 중에 헬륨이 극소량인 사실과도 일치한다) 그 헬륨 양을 측정해보면 이 암석은 15억 년이 아니라 6000년 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최근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 붕괴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헬륨 연구결과와 상보적인 증거는, 우라늄이 붕괴될 때 여러 종류의 원(circle, 방사능, radiohalo)들을 만드는데, 붕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을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방사능 흔이 발견된 것이다.

화강암 속 다량의 헬륨이나 방사능 흔은 지구 역사기간 동안에 방사능 붕괴 속도가 엄청나게 빨

바리는 이상한 결과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역사는 하나뿐인데 세상에서 배운 역사는 사실로 성경역사는 신화로 믿어버린 결과다. 교회와 진화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들어 있는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실체가 없는(=거짓) 믿음으로 진짜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고 중단되어야 한다.

참 역사는 증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연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세상을 보면, 수십억 년이 아닌 젊은 지구의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연대가 사실이란 증거들이 많이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왕이 다스리시는 천국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예수님은 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마음가운데 가득해야 어떤 행동이 따라오며 보장된 행복의 삶을 살아내겠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부러지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최적의 모습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천국백성들에게 우리의 행복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믿음에 있음을 직접 삶으로 가르치셨고 종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죄로 굳어진 마음을 쫓아내고 죄를 잘라내고, 새로 말씀대로 빛내시어 천국을 일구어내십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이 오해를 하여 핍박이 넘쳐도 화평을 이루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나의 왕으로 사랑하니 주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타내시어 사랑을 주고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온전히 다스리시는 인생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과 행동을 합니다. 자연이 이기주의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늘 향내가 물씬 나는 멋쟁이가 됩니다.

모든 세상에 붙은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린 예수님과 하나됨만을 기쁘게 그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속 시끄러운 고민들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예배드리는 재미에 푹 빠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지 모릅니다.

도무지 하늘 행복을 알 길 없는 자들이 온갖 악한 말로 핍박을 해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가난한 심령으로 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매일 불순종하여 반역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인도하러 애쓰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 나날이 그 분과의 사랑은 깊어져간다고 그 사랑에 감격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셔도 이내 꼭 안아주시는 나의 예수님. 당신의 무궁한 인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다시금 흘러가소서. 이 땅 위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뜻대로 같은 축복가운데 가슴에 깊이 새기며 꼭 잡습니다. 내 안에 진리와 은혜가 하나로 만나 축복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넘치도록 임하시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상한 세상의 치유

## 교·회·가·희·망·이·다

김익식 목사의 상담 치유 말씀

**상한 마음의 치유** 336면 / 9,000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상처를 고쳐주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살들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치유자이자 상담자인 김익식 목사가 쓰라린 신앙 경험과 그 치유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요 내용으로는 분노의 치유, 비교의 불행, 회개의 감각, 관점의 전환, 중년의 위기, 감사할 수 없는 자의 감사 등이 있다.

**상한 가정의 치유** 296면 / 10,000원

본서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말씀과 성경에 의한 가정의 치유로 시작해 교회 부흥까지 연결된 행복한 회복을 담고 있다.

**상한 교회의 치유** 396면 / 13,000원

본서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이면 속에 잠겨 있는 상한 감정의 뿌리를 치유하기 위한 저자의 치유목회 설교가 실려 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꿈꾸는 목장에서 시작하여 치유 성경에 의한 가정의 치유로 시작해 교회 부흥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184면 / 7,000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머니의 마음이다. 본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시행한 치유 프로그램 중 '어머니학교'의 개요와 열매를 묶은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치유되며 가정 회복되어 가는 감각이 담겨 있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204면 / 8,000원

치유하는 교회 아버지학교 12주간 교육을 마치며 만들어진 본서는 인류 역사를 빛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가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임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의 국경일과 더불어 신앙의 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며 살 것인가를 증거한다. 치유의 말씀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상한 세상에서 많은 치유를 맺게 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교회가 희망이다, 3:1 정신, 고난의 극복, 광복의 기쁨, 감사의 행복, 종말론적 사명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다.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김익식 목사의 상담 치유 말씀 시리즈 4집

김익식 지음 / 480면 / 15,000원





목회서신

감사는 은혜의 열매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C. S. 루이스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받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구원에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예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며, 은혜

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바울은 그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라"(엡2:8-9). 그는 사도라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며(딤후1:12-14)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15:10).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순간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습니다. 오래전에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읽었습니다. 장 교수는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립대학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2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녀는 타이프라이터(typewriter)를 사용하여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넣어둔 논문의 최종본(Final draft)이 같이 두었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몽땅 도난당하였습니다. 지난 6년의 유학생생활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꼬박 1년 동안 새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논문 헌사에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을 자주 넘어뜨리십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항상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 자주 넘어뜨리시는 것 같든지, 왜 내게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지, 왜 내게는 평생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녀의 책 제목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나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고 신앙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감사는 훗날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글로 적어보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 보세요. 우리의 가슴에 감사가 점점 벅차오를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 받은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GKYM 행사 후원의 밤 23, 24일

영어권 한어권 각각...2차 등록마감일 박두 세계한인청년축제 GKYM이 2차 등록마감일(11월 30일, 250달러)을 앞두고 행사 후원의 밤을 마련한다.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 GKYM NIGHT(11월 23일)과 24일에는 한어권을 대상으로 열린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 후원의 밤은 6시 예배가 시작되며

분야는 등록, 미디어(영상, 사진), IT, 통역, 홍보기도, 교육, 식사, 경비, 교통, 의전 등이다. 자원봉사자 훈련은 12월 8일(주) 저녁 7시 뉴욕총신교회에서 한다. 또한 스태프 모임은 12월 8일과 15일에 저녁 7시 뉴욕총신교회에서 모인다. 캐나다 스태프 모임 스케줄은 자원봉사자 훈련일정과 동일하다(12월 10일 토론토담교회). (유원정 기자)

남가주지역 주말음악회 성황...깊어가는 가을밤 수놓다

지난주에도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은 음악회들이 남가주 지역에서 잇달아 열렸다. 연주회는 주로 기금마련과 정기연주회로 한인사회와 이웃들에게 온몸 감동을 선물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돕기 사랑의 음악회

새찬양교회(담임 변윤선 목사)는 남가주밀알선교단을 돕기 위한 이웃초청 사랑의 음악회를 지난 10일 오후 7시에 새찬양교회와 배재코랄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새찬양교회 시온성가대(지휘 서정수 집사)의 무대로 시작된 음악회는 배재코랄(지휘 유의철),



KAMA 어린이합창단(지휘 류지원) 등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해 청중들에게 따스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소프라노 김은옥과 테너 신하민이 특별출연해 이날 음악회를 더욱 빛냈으며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 사역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이날 음악회는 변윤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린 APU 한인동문회 주최 김유수 목사 초청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김유수 목사 초청 세미나

"교회는 어머니" 주제, 건강한 가정 회복 강조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는 김유수 목사(광주 월광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5일 오전 10시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펠릭스이벤트센터 VIP룸에서 동문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 김유수 목사는 "월광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어머니라는 이미지 속에서 4가지 찾게 됐는데 첫째 현숙한 아내, 둘째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셋째 주부개념, 넷째 자녀를 분가시키듯 지도자를 훈련시켜 개척하게 하거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가정의 개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예전엔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개인 가정을 회복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강조하며 "월광교회는 25년 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다.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자학교 그리고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목사는 "교회들마다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양육프로그램의 성패는 집중력에 달려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그것에 미쳐야 한다. 교인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인들이 리더인 사역자들을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그 테스트기간을 통해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 그저 형식적인 흥내만 낼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 하나를 정해서 집중해서 사역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유수 목사는 "목회자는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한다. 때로는 함께 울어야 하며 함께 웃어야 한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이 다음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제11회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장학기금 마련

제11회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의 밤 2차 공연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 98:1)'라는 주제로 15일 오후 7시4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렸다. 본 센터대표 추영수 목사는 "시각을 잃은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섬김의 사랑과 후원의 힘을 실어주셔서 새로운 빛을 되찾게 하고 귀중한 선교사역에 큰 힘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언급하며 "이번 찬양의 밤을 통해 메마르고 목말라 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함으로 어둠속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길 바란다. 고통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었던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며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임정연PD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의 밤은 민경엽 목

사가 말씀을 전했다.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소개영상이 있었다. 또 비전유스프레이즈, 본 센터 한광호 소장의 톨 연주, 남성중창, 혼성중창, 테니스 알드리튼 씨의 하모니카-크로마하프 연주, 정현정 시인의 시낭송, 정화영 씨의 독창, 소울가야금 합주단의 가야금 연주, 김승기 선생의 색소폰 연주, 비전하모니스의 하모니카 연주 등이 있었으며, 나침반교회 에이레네 찬양대(지휘 류봉수 목사)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찬양의 밤은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른 후 마쳤다. 한편 이 찬양의 밤 행사는 지난 10일 오후4시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1차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박준호 기자)

제22회 LA승실OB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LA승실OB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은 제22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9일 저녁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Sacred Songs △Traditional Spiritual and Musical Songs △Korean Songs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바리톤



권영대 교수가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김광택 남가주 승실중고 동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시절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위해 사랑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살기위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었다. 오늘 승실OB 남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단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애틀랜타 한인교계도 신천지 경계령

이단대책 특별 세미나 및 집회, 강사 이종명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와 애틀랜타 교협, 애틀랜타 목사회가 공동주최한 이단대책 특별 세미나 및 특별저녁 집회가 지난 12일 시온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리고 저녁에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집회가 열렸다. 강사는 미

교회가 늘어나자 애틀랜타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으로 이단대책 집회를 열게 된 것. 이종명 목사는 먼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신천지를 만들었는지 과정을 소개하고 신천지의 교회침투의 방법들을 알리고 기성 교회의 대응전략을 전했다. 애틀랜타 교계의 목회자들은 신천지가 기성교회의 침투를 위해 교육을 시키는 영상을 통해 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종명 목사는 뉴욕에도 신천지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신천지 요원의 교회침투를 파악해 담임목사들에게 알려주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신천지 요원임을 알고 크게 놀란다고 전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교회에 허점이 보이면 교회를 허물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고 소개했다. 이종명 목사는 교회밖 성경공부는 신천지가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하는 방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법외계적으로 이단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애틀랜타 교협)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특별예배가 미주복음방송에서 열었다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특별예배

인도 바탈라성결교회 다스 목사 사역 소개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OCU 회장 장석운 장로)가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우 목사)에서 특별예배를 드렸다. 최훈일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희창 목사가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미군부대에 사역하게 된 섬김의 사람 백행로 목사가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후 인도에서 온 아룬 쿠마르 다스(Aroon Kumar Dass) 목사가 인도의 교회

성장하고 선교 접근을 보고했다. 다스 목사는 20년 전 한국 성결교회에서 인도교역자가 되려는 자신을 서울의 길감교회(개척담임 김희창 목사)에 연결해줘 장학 지원과 실제 목회 수업을 받은 일과 교회부지와 건축을 위해 수만 달러를 지원해줘 오늘의 인도 편담주 바탈라성결교회(Batala Evangelical Church of India, ECI)가 목회에 모델이 됐다고 소개했다. 다스 목사는 바탈라성결교회는 현재 400여명이 모이고 20여 교회를 관할하는 목사가 됐고 ECI 교단은 1,000교회로 부흥하고 있고, 내년엔 감독(Bishop)이 된다고 보고했다. 또 지도목사인 이기홍 목사가 세례 팀을 인솔해 한국을 방문, 경인지역 17사단 군세례식 사진을 보고했다. 12월 모임은 송년 성탄 정기총회로 10일(화) 오후 6시30분 미주 복음방송국에서 모인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기독교TV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뉴욕기독교TV(KCTS, 사장 박용기 장로)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가 후러시제일교회 주최로 12월 8일(주) 오후 6시 후러시제일교회 (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후러시제일교회 연합찬양대, FUMC 오케스트라, FUMC 여성중장단, 새소망합창단(KCTS 후원합창단)과 한인 정삼금 성악가들이 출연해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한국 성가, 찬양대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성탄찬양 등을 연주한다.

▲문의: (718)939-8599, 224-8533

## 영어 원어민교사 초빙

세계전문인선교회 PGM(대표 호성기 목사)이 중국에 체류할 영어 원어민교사를 찾고 있다. 자격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중국을 사랑하는 헌신자로 초빙조건은 주태제공, 중국거주비자 제공, GYM Pass, 중국어 어학연수 및 중국문화체험 기회 부여, 매달 500달러 생활비 제공, 교사 및 사역헌신 경력 인정서 발급. 학교는 AIHB(American International Home-school of Beijing).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 뉴욕교협 필리핀 이재민 돕기 구호모금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은 필리핀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금 모금한다. 모금된 헌금은 뉴욕한인회를 통해 전달한다. 수표는 'KAAGNY'로 쓰고 메모란에 "필리핀 이재민 돕기 성금"이라고 기록하면 된다.

▲문의: (718)358-0074

## 제 8회 뉴욕크리스천 영상제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환 목사) 청년선교회가 주최하는 제 8회 뉴욕크리스천 영상제가 12월 7일(토) 오후 6시 열린다. 1등부터 3등 작품상에는 상금이 주어지며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이 있다. 작품은 한 교회당 2작품이며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출품분야는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참가비는 50달러. 마감일은 11월 30일.

▲문의: (718)316-8189

## 목회자성경연구원 뉴욕지역 공개강좌

미주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하, 미주목성연)이 주최하는 뉴욕지역 공개강좌가 12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뉴욕어린이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요일은 오후 1시까지이며 중식을 제공한다. 강사는 문희원 목사(미주목성연 대표).

▲문의: (718)899-8309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모임 가져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지난 19일 플러싱 거승식당에서 증경회장단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위 사진) 임원이 바뀐 후 첫 초청모임은 방지각 목사가 출발하는 40회기를 축하하는 기도로 시작했다. 회

장 김승희 목사는 "취임식 후 초청하느라 좀 늦어졌다"며 "교협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바라며 1년 동안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 오찬모임은 박희소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회장 황동익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목사회 정총, 감사 김상태 김진화 김희복 목사

뉴욕목사회가 지난 18일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황동익 목사, 부회장에 이만호 목사를 선출했다.

선거일이 가운데 뉴욕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황동익 목사의 인도로 기도 김수태 목사, 설교 이송재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송재 목사는 "작은 이들의 벗인 목사" (마25:4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됐다. 예수님이 아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 것처럼 이 시대 이민교회에서 갈릴리는 어디며 골고다는 어디인지에 대한 답에 교회갱신에 대한 답이 있다.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 섬기는 것이 이민사회와 교회,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는 첫째 영성회복, 둘째 정직성 회복, 셋째 공동체 회복"을



뉴욕 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로 이를 통해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를 말했다.

회의는 최예식 회장 사회로 개회 기도 양승호 목사,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소채택, 임명남 서기의 전회록 낭독이 있는 후 사업보고, 행정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선거는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황동익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부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영환 목사가 49표, 2번 이만호 목사가 70표를 얻어 이만호 목사가 당선됐다. 감사에는 김상태, 김진화, 김희복 목사가 선출됐다.

새 회장 황동익 목사는 "목사회 회원들은 목회 뿐 아니라 선교, 상담, 기도원, 문서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고 여성목사 회원들도 많이 회원들이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며,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사회'로 많은 결실을 맺기를

## 뉴욕교협 40회기 출범...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왼쪽부터 이주의 부회장, 박영진 이사장, 김승희 회장, 김종훈 직전회장, 이재덕 부회장.

지난 14일 뉴욕교협이 제 40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회장 김승희 목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부족한 저를 밀어주고 후원해준 신학의 동지들에게 감사한다"며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 끝나는 숫자다. 모세의 40년 광야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등... 하나님께서 사기실 일이 있어서 직책을 맡기신 것 같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 개선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협, 보통사람들이 나와 일할 수 있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이임하는 김종훈 목사는 "대과(큰과)없이 한 회기를 마치게 돼 감사하다. 39회기를 시작하면서 평안한 교협을 위해 기도했다. 풀트르니에의 말처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 연합도 혼자 할 수 없다"며 "그동안 도와준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 임신행위원들에게 감사하다. 교협이 회기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새 이사장 박영진 장로는 "연합단체인 교협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무예배는 부회장 이재덕 목사 인도로 기도 한재홍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특송 뉴욕초대교회 훈성중장단, 말씀 방지각 목사, 헌금기도 이주의 장로, 헌금송 뉴욕초대교회 기악팀, 축도 최예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 (눅5: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받는 자가 중요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라며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첫째 열매있는 자, 둘째 말씀에 맹목하는 자, 셋째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포기하는 자, 넷째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12면으로 계속>

바란다"고 인사했다.

새 부회장 이만호 목사는 "실망시키드리지 않고 회장을 보필하며 준비된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1년간 고통과 인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힘들고 지친 목사를, 특수 기관 사역을 돕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41회기 주요행사로에는 예배 및 모임은 이취임식 겸 성탄축하예배, 6회의 임신행위원회 모임, 기자간담회가 있었으며 2회의 영성훈련으로 신년금식기도성회와 국난극복연합기도회, 회원진목회로 한마음사랑의 잔치와 2회의 체육대회가 있었으며 구제로 장학금 수여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재무는 총수입 108,623.69달러, 총지출 106,900.26달러, 잔액 1,723.43달러(건축기금 1천달러 포함)로 보고됐다.

신임회원은 11명이 가입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영국(뉴욕하나교회), 김경순(제일사랑교회), 김경열(백성교단기관), 김경자(사론장로교회), 김신영(좋은목자교회), 김경숙(뉴욕즐거움교회), 김화자(뉴욕복음연합교회), 나영애(올네이션교회), 서문도(에버그린한인교회), 이종선(주님의식탁교회), 임용수(좋은씨앗교회), 정성철(뉴욕예배교회), 지도자(기쁨의교회), 최요섭(뉴욕참사랑교회)(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 동부개혁장신 27회 장학기금 마련 찬양축제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를 마치고 찬양단과 교수들이 기념 촬영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지난 13일 제27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를 퀸즈장로교회에서 가졌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2013년 봄까지 4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 설립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도 27회를 맞았다.

1부 예배는 학감 문경환 목사 인도로 기도 소유영 학우(학생회장), 성경봉독 박수진(부회장),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팀(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김성국 목사로 진행됐다.

2부 찬양은 3중창 소절화 교수 소유영 학우 최진식 학우, 합창, 독창 소유영 학우, 간중 최진식 학우,

독창 소절화 교수, 찬조출연 김예은, 인사 문경환 목사, 헌금 및 찬송, 봉헌기도, 합창, 축도 학장 장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장영춘 목사는 행사를 마치고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돌렸다. 퀸즈장로교회는 신학교를 위해 장소제공과 교회기 사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교회 장로 과반수가 신학교 이사로 한인교회 미래 지도자 배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의 밤 밤은 일정은 △22일(금) 오후 8시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전덕영 목사)와 △27일(수) 오후 8시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와 심령이거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에서 동시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남가주교협 제5차 사랑의 쌀나눔

## 13일 출범식...연말까지 모금 이웃사랑 실천



제5차 사랑의쌀나눔운동이 실시됐다. 사진은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LA 카운티 세리프국 민간 교육재단 운영자인 최선일 회장이 성금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제5차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남가주교협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한 출범식이 13일 오전 11시 JJ그랜드 호텔에서 각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올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한인사회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3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총 48일간 성금모금을

통해 사랑의 쌀을 마련해 교회와 사회복지기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및 이웃들과 나누게 된다.

남가주교협회장 박효우 목사는 "우리민족은 가난한 민족이나 힘든 민족을 도와주려는 정이 많은 민족이다. 올해도 사랑의 쌀 통해 타민족까지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체	단체장	금액
LA 한인회	배우한	\$3,000.00
남가주호남향우회	송재현	\$500.00
미주한인사업가협회	강종민	\$500.00
LA 라이온스클럽	이진	\$300.00
남가주간호사협회	권순재	\$200.00
LA 영화인협회	정광석	\$100.00
LA 세리프후원회	최선일	\$100.00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5,000.00
총계		\$9,700.00

배우한 LA한인회장은 "교협 등 여러 단체와 함께 2013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동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미주장신대 개교36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에서 이상명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미주장신대학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성황

## 개교 36주년 기념...모금시간도 가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개교 36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상명 총장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다. 오늘 후원회 밤은 동문과 재학생은 물론 사회단체와 기업체 관계자들 등 우리학교 비전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 연대하고, 이러한 힘을 모아 저희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 3부 모금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총기 학생처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상명 총장의 환영인사, KPCA 부서기 겸 본교 교수인 유영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1차 사랑의 쌀 배부행사는 12월 21일, 2차는 12월 28일 진행된다. 이날 LA카운티 세리프국 민간 교육재단 운영자인 최선일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 실시된 사랑의 쌀 모금운동 제1차 후원단체는 다음과 같다(11월 14일까지 약정된 금액 포함).

올해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개인이 직접 사랑의 쌀을 받아가는 상품권 교환 형식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지정 배부처 10곳과 사랑의 쌀 배부를 책임질 사회복지단체와 교회들이 사정이 어려운 개개인에게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성금보낼 곳: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Pay to: CKCSC-사랑의 쌀)

▲문의: (323)735-3000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하나인교회 설립3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하나인교회(담임 김창균 목사 1323 S. Magnolia Ave. Monrovia, CA)는 설립 3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24일(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문의: (818)395-3526

## 빛나라교회 이종환 목사 취임예배

빛나라교회는 이종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2월 1일(주) 오후 5시 30분 캘리포니아인터네셔널대학교 3층 채플에서 갖는다.

▲문의: (213)270-3482

## 제9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예수사랑세계선교회(대표 조병국 목사)는 제9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12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글래디스파크(806 E.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1)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445-2488

## 류기종 박사 출판감사예배

전 미주감신대 총장 류기종 박사의 신간 '영성강좌' 출판 감사예배가 12월 2일(월)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 크리스천문인협회 송년회

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는 11월 월례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송년회를 30일(토) 오전 11시 만리장성(989 S. Dewey Ave, LA, CA)에서 갖는다.

▲문의: (213)249-0771 정지운 회장, (310)612-9580 고광이 사무국장

## ITS 목회학박사과정 동계 집중강의

ITS 목회학박사과정 동계 집중강의가 12월 2-6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바울신학 과목에 대해 박영호 박사(시카고대학교, Ph.D)를 강사로, 1월 6일-10일(월-금) 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에레미야 과목을 김근주 박사(옥스퍼드대학교, Ph.D)를 강사로 열린다.

▲문의: (626)448-0023, (562)665-5057/한국프로그램 디렉터 김재영 목사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4회 정기총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는 제34회 정기총회를 12월 2일(월)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관 비전센터 128호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824-1210 총무 정희수

# 목회자 무료건강검진 및 건강세미나

## 유니온종합병원-CHM한인지원국 공동주최

2013년 목회자 무료 건강검진, 건강세미나 및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대안 설명회가 12월 9일부터 정오까지 유니온헬스케어 그룹에서 열린다.

유니온종합병원과 크리스천헬스케어(CHM) 한인지원국이 공동주최, 남가주교협과 풀러한인 M.Div. 동문회 후원, 세라노종합안과병원의 협찬으로 열린 이날 건강세미나는 현대인의 질환과 질병의 원인, 신체의 이해, 현대병에 대한 대처와 관리 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오바마케어 대안 설명회는

크리스천헬스케어 한인지원국에서 주관 하에 열렸다. 세미나 시간에 함께 열린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근전도 검사, 신체균형 검사, 피검사를 실시로 했으며 결과는 참석자들의 이메일로 전해지게 된다.

또한 이날 300-500달러 상당의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검품 추첨이 있었으며, 세라노종합안과병원의 후원으로 10명의 사역자에게 무료 안신체의 이해, 현대병에 대한 대처와 관리 등에 대해 다뤘다. (박준호 기자)



제47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회칙개정으로 목회자 참여를 높인다

##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7회 정기총회, 회칙개정 결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는 47회부터 회칙을 전면 수정한다.

목사회는 지난 2008년 개정된 회칙에 의해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자동 승격하도록 했으며 수석부회장만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왔다.

목사회 회칙개정은 그동안 목사회 총회가 열릴 때마다 발생한 후보간 극심한 갈등 등으로 갈등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 그러나 다보니 총회 장소에서 갈등과 분쟁은 사라졌지만 이미 결정된 회장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총회로 전락돼 목회자들의 참여율이 감소했다. 또한 회장출마에 5천 달러, 수석부회장 출마에 3천 달러의 발전기금(회칙 제7조)을 내야하기에, 지도자로서 역량은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한 목회자들은 회장직분을 맡을 기회가 사라져 일부 재력있는 목회자 중에서 회장을 역임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 회칙개정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11월 18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린 제47회 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출마에 대한 발전기금 삭감 등이 포함된 회칙개정작업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그동안 자동 선출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역시 48회 총회에서는 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목사회는 최근 결성된 증경회장단(회장 김사무엘 목사)을 중심으로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회칙개정위원회는 목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회칙을 개정해 목회자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나아가 47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목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목사회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정종윤 목사를 회장으로, 부회장 백지영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했다.

〈박준호 기자〉



2013 목회자 무료 건강검진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 건물 렌트

뉴저지 릿지필드팍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 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 (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한국개혁주의연대' 총신대서 창립대회

## 종교다원·신비·세속주의 맞서 개혁 보수교단 뭉쳐

한국개혁주의연대(한개연)가 18일 창립했다. 서울 총신대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개혁주의신학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와 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개연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며,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심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개연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1648년)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년)과 같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예정함동, 고신, 합신 등 보수 교단 목회자와 신학자, 기독교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대 모임이다. 지난 5월 총신대에서 열린 세계개혁교회대회에서 세계교회가 한국의 개혁교회

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 것이 한개연 창립의 사실도 촉매제가 됐다.

한개연의 창립에는 종교자유주의, 신비주의, 종교혼합주의,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 신정주의(神政主義)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김영우 총신대 재단 이사장은 "하나님은 19세기 말 민족사적 고난의 시기에 개혁주의 신앙 위에 한국교회를 세워 주셨으며,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하게 해 주셨다"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목회자, 신학자, 기독교 학자와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근대 한국의 역사적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교회를 불 때 초

대교회 지도자들은 혼합주의자, 천국복음에 이교주의를 섞으려는 불순분자들과 투쟁해 승리했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 주요 표준문서를 가지게 됐다"면서 "중세 암흑기를 거쳤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성경'이라는 사도적 신앙전통을 온전히 복원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등 바른 신앙의 보고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안타깝게도 현대에도 자유주의 신학,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정통 신학을 난도질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정체성 혼란과 교회 분열로 쇠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입각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설교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개혁교회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던 문화, 현대 세속문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해법을 성경과 삼위일체 중심의 분명한 신앙,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찾을 예정이다. 이것은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과 삶을 의미한다.

한개연 회장에 선출된 박형용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삶과 신학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평화적 남북통일과 창조 세계의 회복 및 보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주준태(예장 고신) 이주형(예장 합신) 총회장, 이환봉 전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장,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개연은 앞으로 학술대회 개혁신앙포럼 기도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 교육 출판 사업을 펼친다.

# 한국교회 위기, 2014년 선교대회서 돌파구

## 한국세계선교협회, 2014 세계선교대회 기획안 공개

대규모 선교대회가 2014년 줄줄이 열린다. 한국교회 선교 협의체인 한국세계선교협회(KWMA·회장 강승삼)는 지난 14-15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림세미나리하우스에서 제12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하고 내년 열리는 세계선교대회 기획안을 공개했다.

선교대회는 철저히 지역교회와 협력한다. 우선 내년 5월 말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 출정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6월 중순부터 전국 79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연합선교 페스티벌(709대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지역교회와 KWMA 산하 회원단체가 연합해 미전도종족 소개, 특별사별기도, 목회자를 위한 선교세미나, 미션 체험 마당 등 지역교회 신자들이 선교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에는 계층별 선교대회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비즈니스 캠프, 선교사 자녀(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통해 선교 열정을 심게 된다. 또 교단별 전국교회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선교로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7월 7-11일에는 한민족아시아

포라 세계선교대회가 서울 양재동 햇빛선교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 176개국 한민족 디아스포라(이주민) 2500명이 참가해 각 나라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민족적 정체성과 선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게 된다. 선교전략회의(NCOWE)와 지역별전략회의(RCOWE)도 각각 7월 14일과 16일 개최해 한국신학과 한국선교학 정립을 위한 논문 발표, 18개 선교 권역별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선교계가 다양한 선교대회를 열고 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최근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교회의 위기는 선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교계가 나서서 교회를 돕고 지속가능한 선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정국 KWMA 사무총장은 "선교계가 한국교회에 보답할 때가 왔다"며 "늦기 전에 반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선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교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목회 영역에 제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역동적 교회를 위한 변혁 신학 연구를 제안했다.

강승삼 회장은 선교의 질적 성숙을 위한 방안으로 선교지의 피선교대상을 선교의 주체로 삼을 것,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제자양육을 기본 사역으로 할 것, 지역·종교권별 전문 단체활동을 격려하고 총체적 미션을 지향할 것 등을 강조했다.

# 한국로잔 동아리, 포천서 연합 캠프

## 국제로잔복음화운동 한국 상황 적용 위해

국제로잔복음화운동(로잔운동)의 로잔연합을 계승하고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교수와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로잔연구교수단(회장 홍기영 교수)은 지난 15-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림세미나리하우스에서 '한국로잔 캠퍼스 동아리 연합 캠프'를 열고 로잔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세계복음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로잔연구교수단은 내년 1월 '로잔운동과 선교'를 주제로 논문을 출간하기로 했다. 향후 연구 주제도 '한국 상황에서의 로잔신학'으로 정하고 논문 발표와 대학별 연구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12개 신학대 교수와 학생 100여명은 한국교회 연합

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국제로잔복음화운동은 1974년 존 스토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등의 주도로 출발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 선교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국내에는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수영 목사)가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산하에 한국로잔연구교수단을 두고 있다.

한국로잔연구교수단은 지난해부터 로잔운동 확산을 위해 감신대와 나사렛대, 백석대, 서울기독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장신대, 주안대학원대, 총신대, 한국성서대, 협성대, 햇빛트리니티신대원 등 13개 대학에 동아리 형태인 '로잔 캠프' 모임을 설치, 신학생들과 협력하고 있다.

# 기감, 임시입법의회 절차 문제로 공전

## 장정개정안 일부만 통과

지난 15일 폐회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공전하느라 정작 중요한 개정안 심의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제안된 장정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됐다.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하위 고리로 판명될 경우 1년 이상 정직과 고태료를 부과하는 안은 부결됐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후보자간 담합,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 등만 통과됐다.

감리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감의 3개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은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법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2016년 12월까지 준비를 완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의회는 실제로 첫날인 지난 13일 시행일 등의 부칙을 빼뜨려 정오표만 첨부된 채 상정되거나 미시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 심의에 올라오는 등의 문제로 개정안은 한 건도 심의하지 못했다. 다음날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자격 등이 논란이 돼 한동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감은 임시입법의회를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에 다시 열 예정이

다. 일부 회원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권한 등을 이유로 총회재판부에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10면에서 계속>

40회회가 하나님에 귀히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은 총무 강경혜 목사의 사회로 기도 최창섭 목사, 이임사 김중훈 목사, 교령기 인계, 축사 민승기 한인회장 김선부 필라델피아총회, 권번 김용철 신부, 유혹장 수여, 감사패 수여, 광고 송일권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신현택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는 김중훈 직전회장과 이대연 직전 부회장, 이주익 직전 이사장(현 부회장), 현영갑 직전 총무에게 수여됐다.

한편 교회는 주소록 발간을 위해 11월 말까지 회원교회들의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유원정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동부(NY, NJ)교회</h2>		<p><b>뉴욕갯세마네교회</b></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b>뉴욕목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사문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2810(강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36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p>	<p><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p>	<p><b>뉴욕중부교회</b></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p>	<p><b>뉴욕초대교회</b></p>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G영어예배: 오전 1:30 화요성경공부: 오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b>뉴저지성도교회</b></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b>리빙스톤교회</b></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b>롱아일랜드성결교회</b></p>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p><b>선한목자교회</b></p> <p>담임목사: 황영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482-7789,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p>	<p><b>중부뉴저지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2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b>퀸즈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요찬양예배: 오후 12:15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p>	<p><b>퀸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절기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b>한마음침례교회</b></p> <p>담임목사: 박마이클</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k@gmail.com</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기타지역 교회</h2>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승철</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남부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송성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8:00 영어학교예배: 오후 11:00</p> <p>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b>덴버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ccdc.org</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891, 269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동운</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85 1550 Wob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밴앨교회</b></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4)461-1235, Fax. (414)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어, 영 어, 영 어: 오전 11:00 영 어, 영 어, 영 어: 오전 11: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b>볼티모어교회</b></p> <p>담임목사: 이영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p> <p>Tel. (410)337-9448, 882-016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b>샬럿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89(백스경향)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b>앵커리지얼린문교회</b></p> <p>담임목사: 유태수</p> <p>주일찬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얼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c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b>큰루리교회</b></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b>타코마 삼일교회</b></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b>타코마새생명교회</b></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2:00(영/한)</p> <p>Tel. (253)635-6207, 531-8424 Fax. (253)6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수병</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6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템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토)</p> <p>www.kk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66</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보</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영언어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kcp.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영언어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요일: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470</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하와이지역</h2>	<p><b>하와이 행복교회</b></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9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선교 펴기

## 러시아

러시아선교교회가 설립 22주년을 지난 10월 27일에 드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모스크바의 한복판에 문화 회관을 임대하여 약 1000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나 러시아 정부가 개신교회에 강당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히 외국 선교사의 비자를 제한함으로써 큰 회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저희 교회는 신학교로 사용하던 선교센터를 개조하여 예배실을 만들어 소규모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저와 함께 온 세계를 다니면 선교에 동참했던 천사 합창단이 이제는 모두 자녀를 가진 40대의 어머니들이 되어 해외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인원은 겨우 7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회살림주일에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22년을 한결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93세 할머니가 나와 그동안의 받은 은혜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 전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갖게 해주셔서 이제는 전 러시아가 저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 이젠티스크(Izevsk) 제4차 전도집회

이젠티스크는 러시아 중앙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약 7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바로 이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많은데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부족하여 기복신앙이나 이단 교리에 현혹되어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부르는 전통 찬송가는 거의 부르지 않고 요란한 복음성가만 부르고 있어서 한국에서 가져온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한국의 찬송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부르게 했더니 이제는 은혜로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전통의상을 입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멜로디는 전통 민속음악이고 가사는 성경적 가사를 붙여 부르는데 참 특이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제한 받는 곳입니다. 2년 전에 이 도시에서 초청을 받아 주일설교를 하고 월요일에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수용소에 가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이외에는 신앙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상주하면 성경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 균

고 있는데 김바울 목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요일인데도 선교센터에 나와 설교를 듣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 볼가그라 (Volgograd) 전도 집회

볼가그라라는 도시는 러시아의 한 복판에 있는 대 도시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에서 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목숨을 바친 도시여서 이 도시를 성역화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러시아에 사죄하는 뜻으로 약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었지만 교인은 고작 3-40명 정도 뿐입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이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원함으로 가졌는데 약 200명의 불신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일이 다 기도해줄 수가 없어서 어린이들만 기도해주고 성인들은 다음번에 와서 기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볼가그라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14년 5월경에 다시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하바롭스크 제 3차 집회

하바롭스크는 북한에서 약 800 Km 쪽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에서 가장 크고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한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치 미국의 LA와 같은 도시입니다. 주일에는 러시아인 교회에서 저녁까지 집회를 가지고 주중에는 한인들을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4차 전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선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고 또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 전통과 성가대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어서 개신교 전도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더구나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처럼 여기는 러시아 정부가 개신교 선교를 방해함으로 러시아에서의 선교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반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복음만 들려주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러시아 선교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더 성장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 드림



에 다시 쓰치에 갔습니다. 러시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복음적 설교에 대하여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적 상담을 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회 교회의 목회자 부부와 함께 기도했으며 미국 텍사스에서 온 미국인 선교사도 병 치료를 받기 위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

에 감명되어 있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마약환자들이 주로 감명되는 간염으로 인한 고통으로 그들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큰 용기가 되고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교를 감명 깊게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주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줍니다. 2년 전에 방문 했을 때 복음 듣고 회개하고 결신하고 철저한 신앙생활 잘함으로 질병을 잘 이겨낸 젊은이들이 지금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도 가지고 일하

## 방지일 칼럼 (17)

# “본대로 들은 대로”

### 단상단하



우리의 예배는 단상에서 예배를 집행하는 이, 또 단하에서 집행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된다. 성가대는 연습한 성가를 불러 하나님을 만나는데 박자를 가한다 할 것이다.

전을 그득하게 메운 모든 신자님들은 그 수가 얼마든지 온 신령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을 뿐이다. 그 어느 누구의 감각이나 일치하게 총동원 집결되어 하나님과 뉘를 대한다. 시선이 직선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면대함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인 것이다.

단상에서 예배를 집행하는 이는 예배 전에 용의주도하게 준비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근자에 교회마다 소위 주보가 준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예배의 순서가 다 수록되어 있다. 그대로 집행한다. 보통 주일예배가 아닌 어떤 특별한 집례도 때로 있다. 직원의 임직 안수식, 입당, 헌당, 목사위임 각종 기념예배 등등 본교인 외에 인사들도 참여하는 일도 많다. 이런 때에는 그 순서 집행에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만나 보려는 장면이 혹 교회 밖에서 참여한 이들에게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집행하는 책임자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드려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한 순서 한 순서를 기도하면서 적어야 할 것이다.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여 집행도중 변경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순서 맡은 이들도 자기 맡은 순서를 집행함에 기도든지 권면, 축사든지 미리 준비하여 임기응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책임 있는 집행자는 일일이 점검할 것이다.

집행도중에 인터폰을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배 도중에 다른일을 벌이는 예배집행에 있을 수 없다. 전 안에 모인 모든 심령들은 다 그 전신경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소위 그 집행인으로서 외부와 통화를 한다. 이런 결례가 없을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

집행자는 단에 언제나 서서 청중의 시선을 잡고 있어야 한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도 집행인의 시선은 성가대를 향해야 한다. 집행인이 그 순서 전부를 자기 신경에 다 입력시켜 그를 다시 재생하는 일이기도 함이다. 큰 예전일 때 순서가 다채로워 다른 순서도 있을 때는 그분에게 단을 맡기고 그가 단에 대리로 서게 하고 자신은 뒤로 갔다가 그 순서가 끝나면 곧 그 교체해서 공백 없이 한다.

누가 기도, 성경봉독, 권면(등등)을 한다는 말은 집행자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순서대로 집행할 뿐이다. 교체에 공백 없이 할 뿐, 집행하는 사회자가 순서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인사 소개 그 담당할 순서를 반복한다. 그 순서 맡은 이가 이를 또 반복한다. 이런 예를 많이 본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정중한 예전에 이질적인 듯한 말들이 끼워야 하겠는가. 순서는 간결해야 한다. 온 회중의 감각을 통일, 집중한 정중한 제단이 쌓여지는데 어떤 장애도 없어야 한다.

이런 순서 집행에는 일반 청중 회중도 그 감각이 다른데 흠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성가는 은혜롭게 함장되는데 순서 집행하는 이는 단상에서 무슨 수군수군하는 그 자세 또 인터폰으로 사무직원에게 지시 부탁하는 일은 그런 자세 그런 미비된 일을 보충하는 일이 예배 도중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반 준비는 완벽하여야 한다.

평소의 예배도 마찬가지다. 순서 집행하는 당회장 혹 노회장 혹 위원장의 식전 그 완벽한 준비에 비례해서 그 예배는 정중하게 집행되어지며 모인 모든 회중도 그 완벽한 준비에 비례하여 저들의 감각이 다 동원되어 한 점에 한 중심에 집중되어진다. 이는 이론에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깊이 체험하게 된다. 개교회 담임목사는 언제나 그렇게 하려나와 더욱 단상에 섰다 함은 그 말씀 전달에만은 아니다. 어느 순서에서든지 전 교인들의 감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지 못할 때는 단상 단하의 집중력은 희미하여지고 그 집중은 흠여진다. 예배랄 수가 없다.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종종 마차를 탈 때가 있었다. 말 두필 혹은 네 필까지도 함께 그 마차를 쫓다. 마부는 그 한말 한말의 고삐를 잡고 그 말들을 조종함을 유심히 보고 있곤 했다. 말이 그저 가는 것이 아니다. 마부는 그 전신경 전각까지 말고삐를 잡고 말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단상에서 있는 목사는 그저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목사의 전 감각과 모든 교인의 감각이 연결되어야 함이 예배이다. 한 고삐를 놓쳐서 그 말의 감각과 통하지 않으면 그 마차는 바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준비하면서의 신경 집행하면서의 감각은 일치해야 한다. 단상 단하의 모든 감각이 한 초점에 모여짐이 하나님을 만나신 체험인 것이다.

(1996년, 1권)

<p><b>세계로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헌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월, 6시)</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요오찬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 오전 5:30 주요찬양예배: 오전 6:30 EM: 대안: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EM: 대안: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목요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양예배 (KCC) 영양예배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요찬양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p>	<p><b>등문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5:30 주요오찬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요예배: 오후 4:00</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비전(18세):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b>새천안교회</b>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미주영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안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주요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7:00(금)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월-토)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 1부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2:30(영양) 청년부: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찬양예배: 오전 11:00</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대안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요찬양예배: 오후 11:00 주요오찬예배: 오후 6: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찬양예배: 365일 24시간 24분</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영양) 청년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대안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요찬양예배: 오후 11:00 주요오찬예배: 오후 6: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찬양예배: 365일 24시간 24분</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영양) 청년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1. 사우디를 정면 비난한 타임지 객원 해설가 파리드 자카리아

타임지의 객원해설가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11월 4일 CNN(Why upsetting Saudi Arabia may not be a bad thing)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그러나 자카리아는 이 점을 정확하게 꼬집었다.

사우디는 자국 내 테러는 철저히 탄압하면서 동시에 석유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른 테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알카에다 자금의 원천은 사우디라



파리드 자카리아(출처: CNN)와 사우디 국왕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출처: TIME)

과 11일 Time(Zakaria: The Saudis Are Mad? Tough!)의 기사를 통해 사우디를 정면 비난했다.

최근 사우디가 유엔안보리 자리를 박차고 탈퇴한 것에 대해 미국이 시리아 반정부군을 지원하지 않고 이란과 대화하며, 이집트 군사정부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리아 반군은 수니파로 종주국인 사우디가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는 늘 원수관계이다. 사우디는 무슬림 형태단을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이는 미국에

고 볼 수 있다. 사우디는 과격한 이슬람인 "와하비 이슬람"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 정리하자면 사우디는 석유와 과격 이슬람 수출국이자 테러 지원국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 있어 사우디가 최대 무기수입 국가라는 사실이다.

2011년 사우디는 세계 1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미국과 334억 달러 수입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전 세계 대상 무기판매에서 사우디의 비중은 50%+α에 달한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이중 플레이가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 친미적 인권탄압과 종교탄

압 국가에는 침묵하지만 반미 국가의 인권과 탄압은 억압하는 미국의 이중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2. 미얀마 무슬림 문제와 수지 여사

AFP는 지난 13일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미얀마 거주 로힝야 무슬림들이 아웅산 수지에게 박해를 멈추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의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피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 족의 참상

신한 로힝야 난민의 지도자인 무함마드 이슬람은 "우리는 유엔과 외국들, 미얀마 정부, 특히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는 수지 여사를 지지했지만 수지 여사는 다른 대부분의 미얀마인과 마찬가지로 로힝야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도 로힝야 무슬림들의 고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지 여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한 서방기자는 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로힝야 문제를 절대 터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또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얼마 전 "불교도들도 무슬림만큼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 수지 여사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로힝야 무슬림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약 80만명 가량의 미얀마 소수 부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족 인근에 거주하는 극단적 불교도들의 박해로 로힝야족의 기약 없는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무슬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대학살로 11개의 타운이 문을 닫고, 100여명이 사망했으며, 약 12,000명의 로힝야 무슬림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다. 당시 1,300여 채

에고했다. 물론 당시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 교수의 말대로 한국은 1998년 경제위기를 당하고 말았다. 아웅산 수지 여사도 유사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 3. "미국에 죽음을!"-최대 규모의 이란 반미 시위

지난 11월 4일 이란에서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34주년을 맞이해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노래와 함께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이란에서 벌어진 반미 시위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잡을 두른 여성, 피켓을 들고 나와 소리 지르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민 등 한결같이 반미·반이스라엘을 외치는 이번 시위는 수도 테헤란을 비롯 일부 대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서방과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중도 성향의 하산 모하니 대통령에 불만을 품은 보수 진영이 결집을 호소하여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망명을 허용하자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였던 지난 1979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분노한 이란 대학생들은 444일간 대사관 직원 52명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란은 미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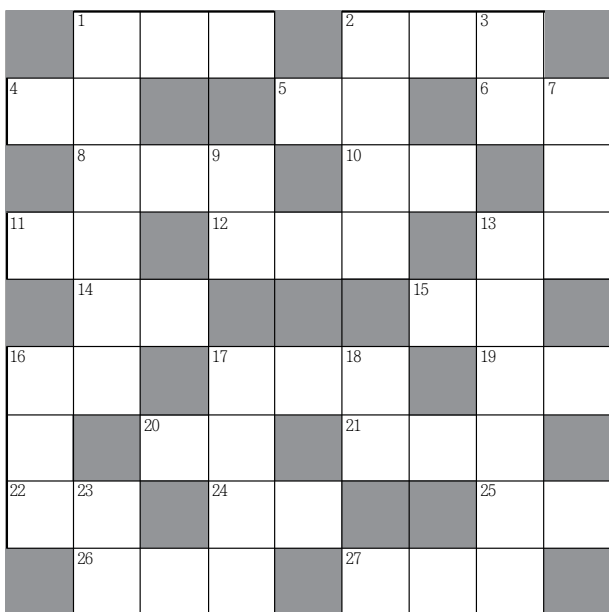
의 집과 32개 모스크가 파괴됐다. 만약 80년대 후반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과격 데모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10년 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더라면 국가 경제가 많이 좋아졌을지도 모른다. 당시 한 경제학교수는 이것을



반미시위현장

## 십자말 • Cross Word (1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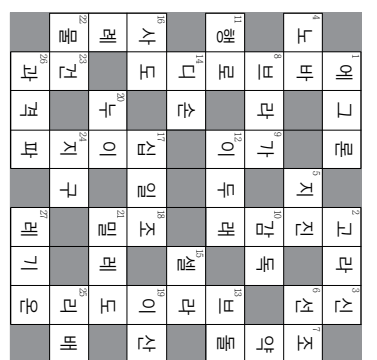
- 블레셋의 5대도시 중 하나.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 14킬로에 위치(수13:3).
- 주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니 저희가 불신하는 고로 대책하셨다(마11:21).
- 므낫세의 자손(민32:42).
- 땅이 상좌좌우로 흔들리는 무서운 현상(왕상19:11).
- 핏줄을 이어받은 먼 조상(창46:34).
- 유대의 남방 드고야 근처에 있는 골짜기(대하20:26).
- 살피어 단속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출1:11).
-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산1:31).
- 갈릴리와 다메섹 간에 있는 작은 도. 분봉왕 빌립이 치리했다(눅3:1).
-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인데 발람의 고향이다(민22:5).
- 세일의 다섯째 아들(대상1:38).
- '높인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시편에만도 70여회 사용됐다(시3:2).
- 예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신 열 두 제자(마10:2).
-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10분의1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일(민18:21).
- 떨어져 흩어짐. 남북OO가족 파위(사11:12).
- 남자의 여자 형제(창4:22).
-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 이곳에 기향해 에베소 장로를 청하여 권면함(행20:17).
-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창31:37).

-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덩어리(눅21:35).
- 기브아인으로 다윗의 30용사 중 잇대의 부친(삼하23:29).
- 지나치게 격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 온건파의 반대.
- 이탈리 남단 시실리섬 대안에 있는 한 섬(행28:13).

### <세로 푸는 열쇠>

-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 본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비용을 가지고 갔던 자(빌4:18).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고사성어).
- 새롭고 산뜻함(시92:10).
- 자질구레하고 둥근 돌. 돌 자갈(애3:16).
-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자 그 군대가 이곳으로 도망침(삼상17:52).
- 빌라도가 국사를 돌보던 관청의 뜰 이름(막15:16).
-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선물(사1:23).
- 이스라엘 열 두 아들들의 종족대로 갈라진 파(창49:28).
- 몹시 뻣뻣함(시122:3).
- 잘못이나 허물(대하33:19).

### 십자말 정답



# 모나리자

##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족,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8. 사모의 사명 가꾸기(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히4:12).

사모들은 열심히 남편의 사역에 내조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은 돌볼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더욱이 이민목회의 사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정착문제입니다. 정착 되어 한식구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땀을 흘리는데 어쩌다 안정이 되었다고 안심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한사람이 떠나면 콩고물 못하듯 함께 우르르 떠납니다. 이런 일들 앞에 사모들은 아연 질색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점심식사준비, 예배시간 동안 해야 하는 베이비시터, 이 모든 것들은 사모의 몫이 됩니다. 말씀 듣기는커녕 정신없이 일에 쫓겨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피곤치기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또 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기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모들의 잘못된 인식이 때로는 말씀의 운동력을 가로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먼저 알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뒤에서 기도로 밀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판단과 비판도 금물입니다. 사단은 주일 아침에 목사부부를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모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목사의 속을 후벼 팝니다. 목사의 허물과 약점으로 말씀의 능력을 앗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있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사모들이 먼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말씀의 칼이 닿아 찢러 쪼개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정도 포함됩니다. 골수 같은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있던 우리의 습관도, 버릇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종교생활에는 능숙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죄성, 겉잡지 못할 불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기질적인 성격, 그러면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 받은 것이니까 하면서 매우 관대하게 넘어가곤 하던 못된 성품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칼에 찢러 쪼개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것을 이용하여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주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말입니다.

히4장 13절에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남편 설교 비판없이 받고 기도하며 격려해야 사모의 짐 가볍게 하는 사명감 회복 꼭 필요

음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처음엔 사명에 불타올라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진땀을 빼고나도 좋은 소리는커녕 사모 때문에 시험에 들어 이리저리러러 말들이 많아집니다. 남편이라도 사모의 사정을 이해하여 그런대로 위로해 주신다면 사모들은 버티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이제 목회 못하겠다” 하는 불평이라도 나오면 그 때는 정말 사모들의 마음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 더 이상은 못 잡아!”

사모들의 기질 따라 나타나는 증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심어지는 자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모들이 여기저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모들을 위해 곳곳에서 위로의 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사모들을 위한 관심이 늘어나 사모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행사가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단회적인 행사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사모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꾸어주는 행사가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남편의 입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말씀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모들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일겠습니까? 오히려 비판하는 자세로 지적하기 바쁜 사모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남편의 행동과 전해지는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편 목사들도 사모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목사 자신이 지키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지키면서 외치는 목사들의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사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

첫째로는 씨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상대방의 목을 쥐고 숨도 쉴 수 없어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셋째는 죄수들이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죄수의 목에 시퍼런 날이 있는 칼을 대고 있음으로 더 이상 머리를 숙일 수 없도록 하는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조차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검으로 찢러 쪼개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무디어진 사명감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명감은 사모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일도 사명감이 뜨거울 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모의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또한 요령과 지혜가 생깁니다. 능숙해지는 것은 유익하겠지만 순수성은 결핍이 되지요. 그러기에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데에서 잃어버렸는지 철저하게 찾기 위해 애쓰는 사모,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힘을 발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예민해질수록 복음의 순수성이 강하게 사모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사모가 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복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온갖 상처로 아무 힘도 의욕도 없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사모의 길을 철저히 반대하는 현상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의 회복은 곧 복음의 회복입니다. 사모들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복음의 회복이야말로 시급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계시에 근거한 삶(겔12:17 : 25)찬500장

구약선지자인데도 복음의 삶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포악으로 가득한 땅이 황폐하게 된(19) 그 시대에 성령은 유다의 참상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 인, 신은 벗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와 믿음으로 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둘째, 모든 목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맞습니다(22). 이스라엘의 생명은 목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에 걸려있는데 목사를 무시함은 모든 생명과 복의 원천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부러 잊고 자기 힘으로 유포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율주의의 망상으로 사로 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현대인의 주장은 계시를 무시한 말입니다. 계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기에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화 말씀의 성취(겔12:1 : 16)찬72장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보여진 심판과 구원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성취 -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칼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외적 황폐화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황폐화입니다. 하나님과 산 교제가 끊겨진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은 그리스도의 종말심판의 전주곡입니다. 둘째, 구원의 역사 - 그런 진노 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28). 그 분이 하신 구원 약속은 하나님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실한 말씀 앞에 서서 그것에 성실한 자가 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시작된 종말시대 곧, 우리 시대는 제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엄청난 구원과 심판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 수 우리 시대의 선지자, 성경(겔13:1 : 23)찬 502장

고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을 주목하십니다. 본문은 그 복됨과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 위험성 - 목사를 받은 선지자가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거짓된 평안을 알릴 때 백성들이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말했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은 그들에게 폭우와 폭풍으로 모두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습니다(11 - 13).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선지자의 역할에 놓여있

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계시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둘째, 그 중요성 - 어둠 속의 빛처럼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살아남습니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성경의존사색의 구원을 세워야 합니다. 바른 성경관을 이따하려는 우리 시대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의 절대 선지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에 성실합니다.

#### 목 개별적 구원(겔14:12 : 23)찬204장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다니엘의 종보기도로 개인의 심판이 재해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한 경건의 본인 다니엘이 구원역사에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로 누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만이 구원을 받습니다(14). 둘째, 노아의 종보사역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가 당대에 의인이었음지라도 자신만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셋째, 욥의 인내의 경건으로도 남을 구하지 못하고 그 자신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그는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을 때 옵니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 주신 개별적 구원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신앙을 따라갑시다.

#### 금 그 사랑을 거절치 말라(겔15:1 : 8)찬360장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첫째, 최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6 - 7).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특권을 가지고 그와의 연합을 맺었어도 이스라엘은 거절해 우상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이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맛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둘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2 - 3). 하

나님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순종과 배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여, 인, 신을 나타내보다 사탄의 형상, 불의, 무자비, 불신실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 분과의 교제를 힘쓰기 위해 포도가자 나무에 붙어있듯이 기도 말씀으로 그와의 연합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15:5).

#### 토 구속의 사랑(겔16:1 : 14)찬495장

심판 중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본문은 구속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자기의 수고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절대불능에서 구속하셨습니다(3 - 7). 예루살렘의 시작을 가난한, 아모리족이 기거하는 곳에서 시작해 나오시고 길러주신 것은 벌거벗은 신생아처럼 밖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 역시 시작이 미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 절대가난상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마5:3). 둘

째,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8). 발가숭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정착 그리고 왕정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속은 시작부터 진행과정에서 모두 은혜이므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살전5:16 - 17). 셋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9 - 14). 그 구속이 실질적인 영화로 나타납니다(창12:3). 그 은혜를 힘껏 찬송합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로마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사택기도: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실) VIA DEI QUINTIL 3-20 00175 ROMA, ITALY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987-6754-5 군포시 금정동 874-10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성가대: 오후 9:00 Tel. (062)264-3181-3, (82)2-2646-4834 500-170 경곡광역시 북구 금곡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제: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2동 1418-1, (612-824)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8-053)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침례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인왕1동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가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가도회: 오후 8:3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가도회: 오후 8:3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마산구 봉곡동 415 www.yang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4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유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성가대: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유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9-1(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성가대: 저녁 9:0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석동 448-23	<b>청주주요진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금요성가대: 저녁 9:0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진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성가대: 아침 7:00(30분) 금요성가대: 오후 7:00(30분) 금요성가대: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도: 아침 7:40 우.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rn@hanr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인/터/뷰 김호동 목사(GMS 인터내셔널 디렉터)

# “주님의 심장 갖고 주님의 선교해야”

세계 선교사 파송국 수위를 다투는 한국이 '선교한국'이 된지는 꽤 된다. 한국 장로교단 중 최다 교회를 보유한 예정합동 해외 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의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2년째 사역 중인 김호동 목사(전 불가리아 선교사)가 뉴욕을 방문했다. 김호동 목사는 한국 선교계의 현황을 전하며 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호동 목사와 배점선 사모

“불가리아에서 20년을 사역하고 본부로 돌아와 2년째 GMS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GMS내의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하고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선교지 사역관리와 선교지의 사역 방향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즉 지역적 실정에 맞는 선교를 하는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GMS는 현재 102개국에 200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100여 개국을 모두 순방하지는 못했지만 70여 개국을 다녔을 것이라고 밝힌 김 목사는 지역별 대륙별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며, “모든 선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사역하지만 현장 검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교 정책 및 철학은 현장 재생산”이라

기독교도 수치로 보게 되는데 교회성장의 바로미터가 선교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약해지면 선교비가 줄어들고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 겁니다. 지난달 유럽 지부장 회의를 주재했는데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11가정 중 4

파송하는 교회는 580교회뿐이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선교하면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김 목사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사는 선교의 방향성을 회

## 사역 방향성과 선교 현장실정에 맞는지 점검 필요 선교자원 현지 발굴 조달, 현지 리더십 양성 중요

고 못 박은 김 목사는 선교지에 ‘큰 교회 하나 세우기’가 목적이 아니고, 노회나 총회의 기능을 갖고 신학교 등과 유기적 조직을 갖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성공적인 예로 필리핀의 경우를 들었다. 30년 전 선교사를 파송한 필리핀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와 교단을 조직해 현재 250여 교회가 유기적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그에 반해 태국은 선교역사는 길지만 사역이 산만해 결집력이 없어 힘이 없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재정비 재정렬하면 현재 160개 교회가 하나의 총회로 결성돼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잘하는데 본부와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도 늦게 시작돼 여건이 어렵지만 신학교, 교단을 세워서 규모는 작지만 조직을 갖춰 자체적 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지역은 조직교회가 잘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교회조직이 잘돼 있지만 활력이 없기도 하다. 특히 공산권 하 선교사들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김 목사는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경제가 침체됐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가정만이 파송교회가 있었습니다”라며, “현재 한국선교는 체질개선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향곡선이 아니고 절벽 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교회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회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교학은 필수이며 기본이라는 의식이 신학교부터 있어야 한다고 하며 한국교회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하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요즘 한국교회가 가치 기준 및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많은 프로그램들을 왜 해야 하는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12사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담이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 풍나물 팔아도 하루 3끼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하다. 전도적 삶을 살 때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합동 1만3천교회 중 선교사를

복함으로 자기 주관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현지인 사역자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개척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지 리더십 양성이 중요하다. 요즘 추세는 선교사 파송도 중요하지만 선교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선교자원 발굴이 요청된다. 재정, 인적 자원선교비가 꼭 한국에서만 같이 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 추천지역으로 “쿠바 등 선교사 극소수 지역이 많다. 세르비아도 3가정뿐”이라며, “요즘은 정보가 오픈돼있으므로 선교지망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선교지를 택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다. 제자들은 네 달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셨다.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과 시가의 눈높이를 못 맞춰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호동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주님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는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럴 때 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 나라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초대시

### 감사기도



고 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담임)

주여  
나의 입술은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게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감사를 잃을 수 없는 것은  
오직 감사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호흡은  
감사로 숨쉬고  
감사로 멈추게 하십시오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오직 감사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생활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게 하십시오  
감사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오직 감사만이  
나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손길은  
감사로 받고  
감사로 드리게 하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감사만이  
나의 주인께 드리는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셀 수 없이 주신 은혜  
말할 수 없이 주신 은혜  
값을 수 없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

세 계 청 년 선 교 축 제

# 지킴 DEC. 25<sup>TH</sup>-28<sup>TH</sup>

## WWW.GKYM.ORG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이사야 40:3

---

**MAIN SPEAKERS**

스티브 더글라스 CCC 총재	유은성 CCM 가수	헨리 오를비 로잔운동 체어맨	박형은(JIM-BOB PARK) 동양 선교 교회 담임 목사	크레이그 오트 트리니티 선교학 교수	최마크 IN2 교회 담임 목사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공동 설립자	김정화 배우	김은열 (JOEL KIM) DEVOTION 교회 목사	티모티 레니악 골든커널 교수	스타필드 크리스찬 찬양밴드	K.S. SAM C국 선교사, 교수
--------------------	---------------	--------------------	-------------------------------------	------------------------	---------------------	----------------------------	-----------	----------------------------------	--------------------	-------------------	------------------------

---

주관/주최: GKYM INTERNATIONAL  
날 짜: 12월 25일(수) ~ 28일(토)  
장 소: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대 상: 18세이상 청년 및 대학생

등록비: **숙식포함**  
1차 마감: 10월 31일까지 \$200  
2차 마감: 11월 30일까지 \$250  
3차 마감: 12월 23일까지 \$300

등록문의: GKYM USA  
Tel: 917-929-GKYM(4596)  
e-mail: rochestergkym@gmail.com  
\*온라인 등록 [www.gkym.org](http://www.gkym.org)